문화여성

문화매일

제 1083호 2021년 7월 7일 수요일 http://www.dailyculture.kr 대표전화 1899-9659

함께하는 100년 농협
지역사회의 든든한 동반자
광명농업협동조합
광명시 범안로 1063(하안동)
☎ (02-896-3141-4)

방역당국 "변이 바이러스 최상의 대응은 방역수칙 준수·백신 접종"

"델타 변이 8월 말 유럽·미국서 90% 정도 우세종 예측"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6일 "변이 바이러스 대응은 충실하게 방역의 기본을 지켜 전파를 느리게 하고 백신을 통한 집단면역을 완성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이 단장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높은 전파력으로 보다 많은 환자를 발생시킬 수 있고 유행의 통제도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방법은 모두 한결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최근의 유행상황을 보면 지난해 여름 다중이용시설과 유흥시설을 이용한 유행 발생과 많은 점에서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젊은 연령층이 이용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유행했고, 또한 빠르게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를 극복하는 방법도 잘 알고 있다"면서 "가장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지키는 것이 가장 혁신적인 대응방법"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단장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으며, 유럽 그리고 미국 등에서는 '8월 말경에는 90% 정도 우세종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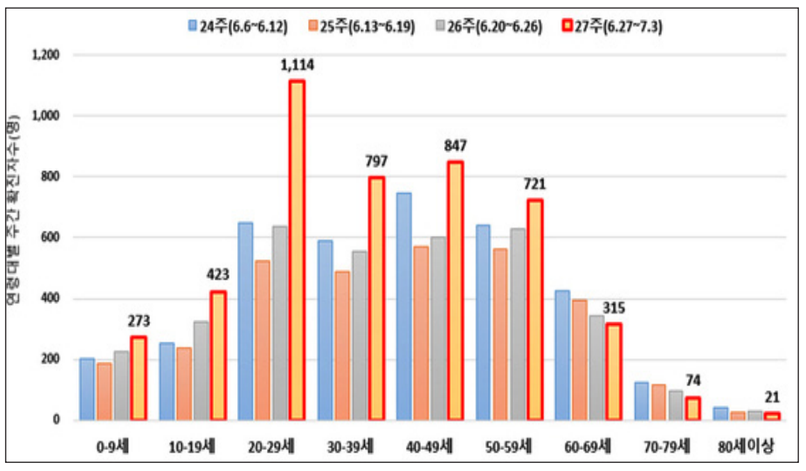
이에 "(방역당국은) 변이 바이러스 감시 강화를 위해 분석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면서 "그동안의 분석을 통해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과학적 지식을 지속적으로 축적해 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질병관리청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위험도를 확인하기 위해 배양시험을 실시, 총 62명·74개의 검체를 대상으로 시험한 결과 배양이 가능한 기간은 증상 발현 후 10일 이내로서 그동안 확인된 비변이 바이러스와 알파형 변이 바이러스와의 배양기간 차이가 없음을 확인했다.

이 단장은 "이번 시험을 통해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전파력은 높지만 감염이 가능한 수준의 바이러스 배출기간에는 차이가 없음을 확인했고, 이는 환자 격리기간 설정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각국은 이러한 델타 변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책임 있는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이 연구결과를 대외에 발표하고 또 국내외 연구진들과 공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단장은 "최근 20~30대 젊은 층에서 발생률이 급증하고 있다"면서 "올해 6월 이후 주점·클럽 관련 집단



사례는 총 21건 발생했고, 수도권 9건, 비수도권이 12건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수도권에서는 젊은 연령이 주로 이용하는 주점 밀집 지역에서 발생이 증가하고 있고, 확진자들은 여러 시설을 반복적으로 이용하면서 불특정다수에게 전파시킬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단장은 "이러한 양상은 비수도권에서도 나타나고 있고, 이용자 및 종사자들이 타 지역의 주점과 클럽을 방문해 전국적으로 확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클럽이나 주점과 같이 밀집되고 밀폐된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과 접촉한 분들은 증상이 없더라도 검사를 받아주실 것을 적극적으로 권고드린다"고 요청했다.

또한 "향후 2주간 펍이나 바, 감성주점, 클럽 등의 이용 자제와 함께 시설관계자는 방문자의 증상 체크, 방명록 관리, 주기적 환기절차 철저 등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주점이나 유흥시설은 물론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실 때에는 머무는 시간을 최소화해 주시고, 음식 섭취 전후나 대화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최광수/기자

[칼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사랑 이야기

우리 주변에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있다. 우리는 이런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통해, 이들을 존중하고, 삶을 배워야 한다.

나이 차이가 크게 나고 이미 결혼을 한 상대라도 서로에 대한 애정과 공감대만 형성되면 사랑의 극치(極致)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사랑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선다.

퇴계 이황(지폐 1,000원 인물)은 49세에 단양군수로 부임한다. 이때 수청을 둔 관기는 18세의 두향(杜香) 이었다. 퇴계는 2년 전 둘째 부인권 씨와 사별한대 이어 아들까지 잃어서 외로움과 수심에 가득하여 있었다. 이렇게 우울할 때 절세 미모에다 시문과 분재에도 능한 두향을 본 퇴계는 첫눈에 마음에 들어 애지중지하게 되었다. 두향이도 학문과 도덕이 높은 퇴계를 흠모하고 존중하며 가까이 모시게 됐다. 이렇게 둘은 첫눈에 서로 좋아져서 마음속으로 깊이 사랑하게 됐다.

둘 사이의 사랑을 시샘이나 한 듯 두 사람의 사랑은 오래가지 못했다. 퇴계가 9개월 만에 풍기 군수로 발령받아 단양을 떠나게 됐다. 두향(杜香)은 분재(매화)를 떠나는 퇴계에게 준다. 그리고 둘은 그 후로 서로 그리움만 간직한 체, 한 번도 만나지 않고 시를 지어 소식만 전하게 된다. 퇴계는 1570년 70세 안동에서 숨을 거둔다. 숨을 거두면서도 퇴계는 아들에게 두향이가 준 분재(매화)에 "물을 잘 주어라"는 유언을 남긴다. 죽으면서도 두향이를 잊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퇴계는 두향이를 가슴에 안고 갔다.

이 부음을 함께 거닐며 사랑을 쌓던 단양 강선대 초막에서 들은 두향은 소복을 입고 안동까지 사흘 걸어와 먼발치에서 장례 모습을 바라봤다. 그리고 걸음걸음 눈물을 흘리며 강선대로 돌아와 곡기를 일절 끊고 초막에 누워 굶어 죽었다. 혹 들여다보는 사람이 있으면 두향이 죽거든 퇴계와 함께 거닐던 강선대 아래 묻어 달라고 했다.

마크롱은 선거에서 65%의 압도적인 지지율로 프랑스 대통령이 되었다. 39세인 마크롱은 프랑스 60년 역사상 가장 젊은 대통령이다. 특히 39세의 마크롱과 64세 부인 브리지트의 스승과 제자 사랑 이야기는 많은 유권자의 지지를 받았다. 마크롱은 브리지트를 15세 때 학생과 교사로 처음 만났다. 문학과 라틴어 선생님이자 연극반을 담당했던 그녀는 당시 마흔이었다. 유부녀였고, 세 명의 자녀도 있었다. 세 자녀 중 한 명은 마크롱과 같은 반 친구였다. 이런 상황도 사랑 앞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 브리지트가 담당하던 연극반에서 주연을 맡은 마크롱은 대본 회의를 위해 매주 브리지트와 만나면서 사랑에 빠졌다. 대통령과 영부인으로서 많은 프랑스인의 존경을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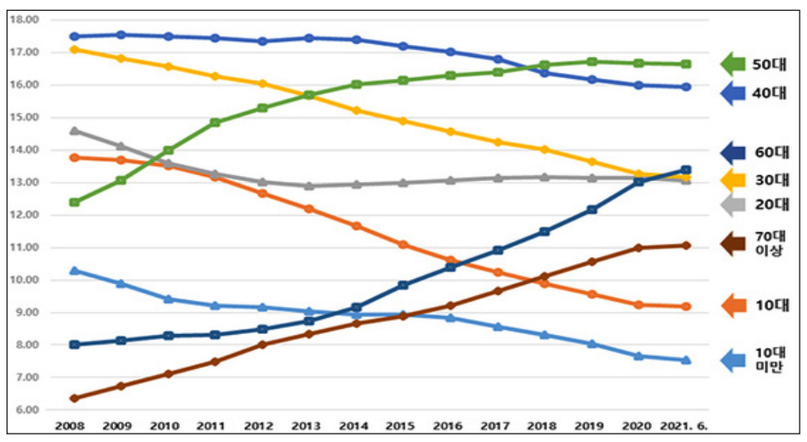
캄보디아 출신의 스롱피아비(41)는 어린 소녀이었을 때 부모님과 감자 농사를 지었다. 넉넉하지 못한 가정 형편에 국제결혼을 결심한 스롱피아비는 2010년 남편 김만식(69) 씨를 만나 청주의 작은 복사 가게에서 한국 생활을 시작했다. 우연한 기회에 남편의 권유로 당구에 입문한 스롱피아비는 남편의 적극적인 지지에 선수 등록 1년 만에 국내 여자 순위 1위에, 세계여자 순위 3위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 나이를 뛰어넘어 서로를 사랑하며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 스롱피아비는 우승 상금으로 캄보디아 어린이를 위해 구충약을 보내고 있다.

이렇게 우리 주변에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다. 이들은 서로의 단점을 승화시키고 장점만으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 수 있었다. 우리는 세대 간의 갈등, 흑백논리에서 벗어나 서로를 동등한 인격체로 봐야 한다. 우리는 애정의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의 인격체로 섬겨야 한다. 이제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함께하는 공동체와 사회를 만들어가야 한다.

세종사이버대학교 군경상담학과 김원호교수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50대 비중 가장 높아…평균연령은 43.4세

행안부, 주민등록 연령별 인구통계 발표…"50세 이상, 10년 뒤면 절반 넘을 듯"



6월 30일 현재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 중 50대가 859만 314명(16.6%)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6일 우리나라 주민등록 연령별 인구 통계를 발표, 2008년부터 40대 이하는 비중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반해 50대 이상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인구 비중은 50대에 이어 40대(15.9%), 60대(13.5%), 30대(13.1%), 20대(13.1%), 70대 이상(11.1%), 10대 (9.2%), 10대 미만(7.5%)의 순이다.

이번 발표에 의하면 4050(32.5%)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2030(26.2%), 6070(20.7%), 10대 이하(16.6%), 80대 이상(4.0%)순으로 나타났다.

출생연도별로는 50대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1960년대생이 약 86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6.6%를 차지하고 있고, 1970년대생(16.2%), 1980년대생(13.7%), 1990년대생(13.2%), 1950년대생(12.0%), 2000년대생(9.6%) 순이다.

또한 올해 6월말 주민등록 인구 평균연령은 43.4세로 2008년에 비해 6.4세 늘었으며, 특히 여자의 평균연령은 44.6세로 남자 42.3세보다 2.3세 높게 나타났다. 전국에서 평균연령이 40세 미만인 광역자치단체는 세종시 37.5세가 유일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했을 경우에는 수도권의 평균연령은 42.5세, 비수도권의 평균연령은 43.8세로 비수도권이 수도권보다 1.3세 높게 나타났다.

한편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는 5167만 2400명으로, 3월말에 비해 3만 3505명(-0.06%)이 줄어들어 지난해 사상 첫 인구가 감소한 이후 올해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인구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올해 2분기(4~6월) 출생(등록)자는 6만 7029명이며 사망(말소)자는 7만 5450명으로 지난 1분기에 비해 각각 1070명, 3019명이 감소했고, 전체 세대수는 지난 1분기에 비해 9만 8947세대(0.43%↑) 증가해 6월말 현재 2325만 6332세대를 기록했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행정정책관은 "이번 통계를 통해 40대 이하 인구는 큰 폭으로 감소하는데 반해, 60대 이상 인구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 인구분포의 비대칭성이 점점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10년 뒤에는 50대 이상 인구가 전체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보이고, 평균연령이 50세를 넘어서는 지역이 상당수 나올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이를 대비하기 위해 인구 활력을 높이는 정책 추진에 속도를 높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만식/기자

2학기 학자금 대출 7일부터 신청… 대출금리 1.7%로 동결

2021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를 1학기와 동일하게 1.7%로 동결하고, 특별승인제도를 확대해 1회에 한해 성적 기준 충족 여부와 상관없이 대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올해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 및 접수를 7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히며 미성년자 학자금 대출 신청시 단계별 부모 통지를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희망 학생들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http://www.kosaf.go.kr) 또는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을 통해 학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등록금 대출은 오는 10월 14일, 생활비 대출은 11월 18일까지 가능하다.

올해 2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는 코로나19 백신 공급 및 경기 회복세에 따른 대출 재원 마련을 위한 채권 조달금리 상승 전망에도 불구하고, 지난 1학기와 동일하게 1.7%로 동결한다.

아울러 올해 2학기부터는 경제적 사유 등으로 학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승인제도를 확대 시행한다.

특별승인대출은 성적, 이수학점 등 대출 자격요건에 일시적으로 미달하는 학생 중 승인 기준(D학점 이상, 특별승인 교육 이수 등)을 충족한 학생을 대상으로 학자금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로서 기존에는 성적 기준(D학점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특별승인제도(2회)를 이용 가능했으나, 앞으로 1회에 한해서는 성적 기준 충족 여부와 상관 없이 특별승인제도를 통해 학자금을 대출할 수 있다.

또한 미성년자가 학자금 대출 신청 때 대출 정보를 부모에게 통지하던 단계를 기존 승인 단계에서 신청 단계까지 확대해 대출 전 과정에 걸쳐 단계별 부모 통지를 강화, 미성년자가 대출에 대해 숙려하도록 해 무분별한 대출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한다.

한편 학자금 대출이 필요한 학생들은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약 8주간의 통지 기간을 고려해 대학의 등록마감일로부터 적어도 8주 전에 대출을 신청해야 안정적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http://www.kosaf.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고객상담센터(1599-2000)에서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설세훈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학생·학부모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학자금 대출 저금리 기조를 유지해 학생들이 학업을 지속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광수/기자

코로나 신규확진 1212명 '올해 최다'…"가장 강력한 거리두기 검토"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신규 확진자 수가 1200명대로 급증했다.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신규 확진자 수 규모다. 방역당국은 확산세가 잡히지 않으면 가장 강력한 단계의 거리두기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7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212명이라고 밝혔다. 지역발생 1168명, 해외유입 44명이다.

최근 일주일 간 신규 확진자는 일별로 761명→825명→794명→743명→711명→746명→1212명이다. 이 기간 700명대가 5번, 800명대와 1200명대가 각 1번이다. 보통 주말·휴일 검사건수 감소 영향으로 주 초반까지 확진자가 비교적 적게 나오다가 중반부터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지만, 이를 감안해도 이례적으로 많은 것이다.

1200명대 확진자는 지난해 연말 '3차 대유행'의 정점(12월 25일, 1240명) 이후 194일 만이다. 이날 1212명 자체는 지난해 1월 20일 국내에서 첫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 이후 두 번째로 많은 수치다.

지역별로는 서울(577명)·경기(357명)·인천(56명) 등 수도권에서 990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비수도권은 부산(33명)·대전(29명)·제주(18명)·충남(16명)·경남(15명)·대구(12명)·강원(12명)·광주(10명)·전남(10명)·전북(8명)·세종(5명)·충북(5명)·경북(4명)·울산(1명) 등 총 178명이다.

주요 집단감염 사례를 보면, 서울 마포구 음식점-수도권 영어학원 8곳과 관련한 누적 확진자가 314명으로 늘었다. 이 중 일부는 델타 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과 관련해서는 총 47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또 서울 강서구 실내체육시설(누적 13명), 인천 미추홀구 초등학교(26명), 경기 파주 공사현장-서울 노원구 직장(13명), 대전 대덕구 직장(8명), 부산 해운대구 유흥주점(12명) 등의 신규 감염 사례도 확인됐다.

지난 4월 하순부터 시작된 4차 유행이 대유행 수준으로 번지는 상황이다. 최근 들어 직장, 학교, 백화점 등 일상 공간 곳곳에서 집단감염이 속출하고 있다. 아울러 인도 유래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까지 확사하고 있어 앞으로 유행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고 방역 당국은 경고했다.

이날 김부겸 국무총리는 중대본 회의에서 "모든 역량을 코로나19 대응에 쏟아부어야 할 비상 상황"이라며 "다시 한번 일주일간 기존의 거리두기 체계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만일 2~3일 더 지켜보다 이 상황이 잡히지 않으면 새로운 거리두기의 가장 강력한 단계까지 조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코로나19 사망자는 전날보다 1명 늘어 누적 2033명이 됐다. 국내 평균 치명률은 1.25%다. 격리해제된 확진자는 740명 늘어 누적 15만1500명이고, 격리치료 중인 환자는 471명 늘어 총 9220명이다. 위중증 환자는 총 155명으로, 전날(144명)보다 11명 늘었다.

최재은/기자

강득구 의원, 모든 아이들을 위한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 선정 시부터 학교 차별 없어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5일 9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 사립학교 차별 해소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교육부는 지난 1일, 한국판 뉴딜 대표과제 중 하나인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의 2021년 대상 학교 484개교를 선정했다. 하지만 이번에 선정된 2021년 대상 학교 484개 중 사립학교는 49개교에 불과하다. 사립초등학교를 제외하더라도 학교 비율에서 중학교가 20.5%, 고등학교가 39.9%가 사립학교인 상황을 고려한다면, 이번 결과에서 비율상으로도 사립학교가 적게 선정된 상황이다.

게다가, 선정된 49개교 사립학교의 경우, 교육부 지침에 따라 '개축'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되고 '리모델링' 사업만 진행할 수 있다. 리모델링 사업도 지역별로 비율 제한을 두고 있어 이중 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전체 물량의 20%로 사립학교 리모델링을 제한하면서 사립학교가 많은 지역은 사업 대상에서 배제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안양 만안 지역의 경우, 중·고등학교 15개 중 사립학교가 8개인데, 공립학교와 사립학교 물량이 20:80으로 획일적으로 나눠버려 사립학교 선정에 차별을 받기도 했다.

사립학교는 이미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 '고등학교 평준화 실시', '교직원 월급 지급', 그리고 '국가교육과정 공통 적용' 등으로 공립학교와 크게 다를 바 없다. 공립학교와 사립학교 구분 없이, 모든 학생들이 학교라는 공간에서 공교육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역대 가장 큰 교육분야 국책사업인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에서 배제되고 있다.

현재 사립학교는 헌법과 교육기본법, 사립학교법에 의해 보장받는 학교이다. 헌법 제31조는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교육기본법 제4조는 '모든 국민은 교육에서 차별받지 아니한다.'고 적시되어 있다. 또한 사립학교법 제1조는 '사립학교의 공공성을 높인다 '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28조는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에 대하여 매도 · 증여 · 교환 · 용도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 또는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를 포기하려는 경우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기자회견에서는 사립학교 차별 해소 촉구와 더불어 그린스마트미래학교가 교육에 '미래'가 들어가는 사업으로 개축과 리모델링 시 단가에 대한 획기적 상향 조정이 필요하고, 사업이 이뤄지는 5년 동안 포함되지 못하는 다른 모든 학교에 대한 '중장기 로드맵'도 구축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설계용역과 사업 시행 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가산점 등을 활용해 지역 내 중소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문호를 활짝 열어줄 것도 제안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교육은 아이들의 입장에서 고민해야 한다. 교육부장관이 직접 나서서 사립학교 개축에 대한 원천적인 배제를 즉각 해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또한, 획일화된 사립학교 리모델링 비율 제한에 대한 삭제도 해야한다. 미래의 모든 아이들을 위한 차원에서, 그에 걸맞는 단가 조정, 미신청·미선정학교 대책, 지역중소기업 참여 등도 적극 고민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최광수/기자

충남도의회 '지방의회 부활 30주년' 기념행사 개막

서른 살 지방의회를 축하하고 새 자치분권 시대 개막을 준비하기 위한 충남도의회 '지방의회 부활 30주년' 기념행사가 5일부터 이틀간 다양하게 펼쳐진다.

첫날에는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장 초청 특강과 '자치분권 법제화의 방향' 토론회가 개최된다.

김 위원장은 이날 '자치분권 2.0 시대와 지방의회 발전방향'을 주제로 새 자치분권 시대의 개념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의의, 미래 지방자치 환경과 지방의회 역할을 소개할 예정이다.

도의회 입법평가위원장인 이공휘 의원이 좌장을 맡은 토론회에선 대학교수와 법제처 등 전문가들이 주제발표와 토론을 통해 자치입법권 강화 방안을 모색한다.

이튿날에는 예산군 덕산면 스플라스리솜에서 재정분권 토론회와 지방의회 부활 30주년 기념식이 열린다.

도의회와 한국지방세연구원 공동으로 주최한 토론회에선 재정분권의 미래를 주제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될 예정이다. 최진혁 충남대 교수의 진행 아래 우리나라 지방세·행정·법제 연구원과 대학교수 등이 참여한다.

이어 오후 2시부터 부여군충남국악단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개회식과 내빈소개, 기념영상 시청과 경과보고, 의정발전 공로패·의정우수대상 수여, 기념사 및 축사, 홍보대사 위촉, 부활 30주년 기념 퍼포먼스 순으로 지방의회 부활 30주년 기념식이 진행된다.

기념식에는 전·현직 도의원과 충남 광역단위 기관장, 국회의원과 시장·군수, 시도·시군의회 의장을 비롯해 대학·보훈·종교·경제계·사회·언론 등 각계 기관장·대표가 참석해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축하할 예정이다.

고정화/기자

임미란 의원 '광주광역시 전통문화보존 관리 및 육성 조례'제정

전통문화 전반에 관련된 법이 아직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전통문화의 보존 • 관리 • 육성을 통해 광주광역시를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문화도시로 계승 • 발전시키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광주시의회 임미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남구 제3선거구)이 대표 발의한'광주광역시 전통문화 보존 • 관리 및 육성 조례'가 상임위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전통문화를 보존 • 관리 및 육성하고 전통문화유산의 관광자원화를 위한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했다.

또한, 기본계획 및 시행 계획을 5년마다 수립 • 시행하고 전통문화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그 밖에 전통문화의 보존 • 관리 • 육성을 위한 홍보 및 전통문화와 장소를 활용한 관광자원화 사업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임 의원은 "전통문화를 통해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 우리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며 "새로운 혁신도 과거의 뿌리에서 출발할 수 있는 점을 인식하고 전통문화를 가치 창출의 일환으로 개발한다면 문화중심도시 광주의 한 축이 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임 의원은 지난 23일 '(사)광주칠석고싸움놀이보존회(회장 이임연)'가 주최한 심포지엄에서 "지역을 넘어서 시대와 공간을 초월한 대한민국 대표 대동한마당 민속놀이인 광주칠석고싸움놀이를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해야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덕윤/기자

경상북도의회 박채아 의원, '경상북도교육청 학생통학지원 정책토론회' 개최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박채아 의원(비례, 국민의힘)은 7월 5일 오후 2시 경산교육지원청에서 어린이들의 등굣길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경상북도교육청 학생통학지원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지난 2020년『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되면서, 통학지원에 관한 내용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게 하였고, 이에 따라 박채아 의원의 대표발의로 2021년 2월 15일『경상북도교육청 학생통학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조례제정에 따라 경상북도교육청이 구체적인 운영지침을 마련하는 데 학부모들의 살아있는 목소리를 전달하고, 올바른 통학지원정책 수립에 도움을 주기위해 마련되었다.

박채아 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서는 경상북도교육청 학교지원담당 김인찬 사무관이 "경상북도교육청 학생통학지원 정책"에 대한 주제발표를 하고, 정평초등학교 윤경희 운영위원장과 임당초등학교 송지선 셔틀버스추진위원회 부위원장이 지정토론으로 참여하였다.

주제발표에서는『통학차량 운영지침』을 학생 통학의 안전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고,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기준을 마련하여 2022학년도 통학지원을 추진하겠다고 하였다. 특히 교육지원청이 노선 순환식으로 통학차량을 운영하도록 업무를 이관하여 학생들의 교육환경 접근성을 개선하는데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지정토론자들은 통학로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라면서, 통학지원을 단순히 통학거리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통학로의 안전 등 다양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통학지원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채아 의원은 "2020년 교통사고통계분석에 따르면 2019년 어린이 교통사고는 11,054건으로 28명이 사망하고, 14,115명이 부상당했다"면서, "통학지원은 통학거리에 따른 지원정책이 아니라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안전한 등굣길 마련을 위한 통학지원정책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세기/기자

http://www.dailyculture.kr 문화매일 facebook.com/dalyculture.kr
우편번호 :08333 서울 구로구 개봉로 12길 9-19 105동 201호
우편번호:14222 광명시 시청로7 홍신에이스텔 701호
발행.편집인: 최수진 /회장 문기주/부회장 박류석 /사장 임석경 / 편집국장:최재은
청소년 보호 책임자 발행인:최수진
대표전화:1899-9659 e-mail:ekwk44@naver.com sujin004344@daum.net
2009년 4월 12일 창간
2009년 3월 12일 등록번호:서울.가50146
본지는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한다
대표전화 : 1899-9659
편 집 국 : 02)2612-2959
팩 스 : 02)2060-4147
정 치 부:내선 (112) 문 화 부 :내선 (116)
사 회 부:내선 (113) 부동산부 :내선 (117)
경 제 부:내선 (114) 오피니언부 :내선 (118)
스포츠부:내선 (115) 지 방 부 :내선 (119)
구독신청.배달안내 : 1899-9659 구독료 : 월 15.000 1부 800원

영등포구, 고용노동부 주관 '2021 사회적기업 육성 우수 자치단체' 최우수상 수상

영등포구가 고용노동부 주관의 '2021년 사회적기업 육성 우수 자치단체' 선정에서 지역 사회적기업 육성 및 판로지원, 성장 발판 마련에 높은 평가를 받아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사회적기업 육성 우수 자치단체' 평가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며, 한 해 동안 사회적기업의 발전과 활성화에 뚜렷한 성과를 보인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해 포상하고 각 지자체별 우수사례를 서로 공유하여 지역 중심의 사회적기업의 육성과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하여 2017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올해는 ▲ 지역 일자리 창출 및 판로지원 ▲ 예비 사회적기업의 발굴 및 관리 ▲ 사회적기업 지원체계 수립 및 우수사례 발굴 ▲ 집행, 정산, 부정수급 관리 ▲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재 양성 체계 구축 등의 5개 분야에 대한 평가가 실시됐다.

이에 구는 2019년에 비해 예비사회적기업의 수가 78% 증가하고, 신규 예비사회적기업 수 대비 인증 기업 수 비율인 인증전환율이 75%에 달하는 등 일자리창출 및 예비사회적기업 발굴·육성 분야에서 높은 성과를 보이며 호평을 받았다.

또한, 지역 기반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 코로나19 희망일자리

창출 ▲ 민·관 협업모델 구축 등 자체 사회적기업 지원제도의 운용과 지역사회 연계형 사회적 가치 확산에 힘쓴 점도 높게 평가되었다.

아울러, ▲ 지역 내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자체 지원 ▲ 라이브 소셜커머스 '소셜포켓' 등을 통해 영등포구만의 특색 있고 발전 가능성 높은 사회적기업을 발굴하고 행·재정적 지원과 매출 증대에도 크게 기여했다.

한편, 구는 2019년 미래비전추진단 산하에 사회적경제과가 신설된 후, 영등포구에서 활동하는 사회적기업의 수가 43개소(2019.1.기준)에서 86개소(2021.6.기준)로 크게 증가하는 등 사회적기업의 육성과 지원에 힘써왔다.

특히 ▲ 영등포구 사회적경제 공동 브랜드 '포포그레' 출범('20.8. 상표등록) ▲ 지역문제해결형 소셜벤처팀 육성 ▲ 일자리창출형 주민기술학교 운영 ▲ 공동주택 같이살림 ▲ 생활상권 조성사업 ▲ 영등포시장역 사회적경제 플랫폼 운영 등 지역을 기반으로 주민과 사회적기업이 함께 상생하는 다양한 정책사업을 적극 추진해왔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2019년 구청 내 '사회적경제과' 부서를 신설한 후 '생활 속 사회적경제, 탁트인 영등포 실현'을 비전 목표로 지역사회 기반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열심히 뛰어왔다"며, "앞으로도 주민과 사회적기업과 함께 연대하고 협력하여 보다 큰 사회적 가치의 조성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전했다.

김현일/기자

강동구, 11년 연속 대한민국 환경대상 수상

강동구가 지난 7일, 마포구 상암동 중소기업DMC타워에서 개최된 '제16회 대한민국 환경대상'에서 공공부문 도시농업 분야 대상을 수상하면서 올해까지 11년 연속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환경대상은 대한민국환경대상위원회와 미래는우리손안에·환경미디어가 주최하고 환경부,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후원하는 대한민국 환경 분야의 대표적인 상이다.

올해 16회를 맞이하는 대한민국환경대상은 경영, 교육, 문화, 관광, 생태복원, 재활용, 산업설비, 에너지절감, 농축산물, 서비스, 제품, 특수부문 등 각 부문 전 과정에서 친환경적 접근으로 노력한 단체와 개인에게 상을 수여한다.

강동구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어김없이 도시농업 분야에서 대한민국 환경대상을 수상함으로써 대한민국 환경대상 수상자 중 유일하게 11년 연속 수상자로서 도시농업 정책을 통한 다양한 친환경 가치 사업의 성과를 다시 한 번 인정받았다.

강동구 도시농업은 2010년 전국 최초로 「서울특별시 강동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영향을 미쳤다.

구는 도시농업을 통해 환경, 건강, 교육, 정서적 가치, 건강한 먹거리, 종자 주권의 회복 등을 추구하고자, ▲도시텃밭 ▲토종씨앗도서관 ▲도시양봉장 ▲도시농업공원 ▲공공급식센터 ▲파믹스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다.

친환경 농산물 직거래 매장인 싱싱드림을 운영하여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체계적이고 저렴하게 공급할 뿐만 아니라, 생산농가의 안정적인 판로확보와 농산물의 장거리 운송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줄이는데 기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강동구 도시텃밭은 2010년 226구좌로 시작하여 2021년 현재는 6,258구좌까지 늘어났다.

또한, 올해 '공유팜'과 '원데이 체험텃밭'을 운영하여 이웃과 텃밭을 공유하고 공동체문화 회복과 공유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저소득 주민에게 반려식물을 통한 원예치유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복지 기능을 연계한 사회적 도시농업을 확대하고 있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지역주민과 직원들의 노력으로 이루어낸 11년 연속 대상 수상은 값진 성과"라며 "도시농업의 육성과 지원은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환경 보호와 인간성 회복을 위한 중요한 실천이기에 앞으로도 구는 꾸준히 도시농업 추진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황규석/기자

관악구, '관악사랑상품권' 10%할인 140억 원 추가 발행

관악구가 오는 7월 12일 낮 12시부터 관악사랑상품권 140억 원을 추가 발행한다.

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해 지난해 총 230억 원, 올해 상반기 180억 원, 총 410억 원을 발행한데 이어 추가로 140억 원을 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7월 발행하는 서울시 19개 자치구 평균 발행금액인 95억 원을 훨씬 웃도는 금액으로 전체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이다. 하반기 발행 예정인 70억 원까지 포함하면 올해 총 발행규모는 390억 원으로 지난해 총 발행규모인 230억 원보다 160억 원이 많은 금액이다.

소비자를 위한 혜택도 준비했다. 상품권 상시할인은 7%이지만 위축된 소비 진작을 통한 침체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이번 대규모 추가 발행에도 특별할인율 10%를 제공, 소비자와 지역 소상공인에게 통 큰 혜택을 준비했다.

관악사랑상품권은 각종 이벤트와 할인, 결제수수료 0%, 소득공제 30% 등 다양한 혜택으로 구민들의 큰 호응 속에 발행 때마다 전액 완판됐으며, 판매된 관악상품권의 88%가 사용되는 등 결제율 또한 높아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의 매출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상품권은 1, 5, 10만 원 권 총 3종 모바일 형태로 발행되며, 할인구매한도는 월 70만 원, 보유한도는 200만 원이다.

환불 기준은 전액 환불일 경우 7일 이내 구매취소 시 가능하고, 잔액환불일 경우 액면가 60% 이상 사용 시 할인지원금 10%를 제외한 잔액이 환불된다.

지역 내 제로페이 가맹점 1만 2,074개소(2021년 5월말 기준)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사행성 점포나 대형 입시학원, 대기업 계열 영화관 등 중견기업 이상 직영점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제한업체는 서울시 홈페이지(경제▷제로페이▷지역사랑상품권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악사랑상품권 결재앱도 늘어난다. 우리WON뱅킹, 신한SOL등이 추가되어 총 19개로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결제앱과 관련된 더 자세한 사항은 제로페이 모바일상품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소비자와 소상공인 모두의 큰 관심과 호응으로 관악사랑상품권의 구매와 결제가 활발히 이뤄지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며 "원활한 백신 접종과 함께 내수 경제가 서서히 회복되는 것에 발맞춰 이번 관악사랑상품권 발행이 지역 상권에 더욱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강성원/기자

중랑구, '제78회 중랑마실' 중랑주부교통순찰대와 만나다!

중랑구가 6일 오전 중랑주부교통순찰대와 함께 제78회 중랑마실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중랑주부교통순찰대와 함께 중곡초등학교 인근을 방문해 교통안전 캠페인을 진행하는 현장을 살폈다. 이후 회원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지며 올바른 주차문화와 교통안전 개선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2003년 결성된 중랑주부교통순찰대는 지역 내 주부 40명으로 구성된 봉사단체로 매월 교통안전 캠페인, 어린이보호구역 등교 지도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CCTV가 미처 살피지 못하는 좁은 골목까지 세심하게 살펴주시는 주부교통순찰대 분들이 계셔서 든든하다"며, "통학로 정비, 무인단속 CCTV 설치 등을 통해 교통약자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구는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기 위해 지난해 주요 교차로 및 어린이보호구역 등에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CCTV 16대를 설치했으며 올해에도 15대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민선7기 들어 1,426면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1,086면의 주차장을 개방하는 등 총 2,512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해 주차난 해소에도 힘쓰고 있다.

최만식/기자

'10% 할인' 서대문사랑상품권 116억 원 규모 추가 발행

7월 12일 오전 10시부터 액면가 월 70만 원까지 10% 할인 혜택

서대문구가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달 12일 오전 10시부터 116억 원 규모로 서대문사랑상품권을 발행한다.

구는 지역화폐인 이 상품권을 지난해 235억 원, 올 상반기 150억 원 규모로 발행해 전액 판매 완료했으며 하반기를 맞아 추가 발행하기로 했다.

서대문사랑상품권 사용은 서대문구 내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가능하며, 구입은 누구나 할 수 있다.

스마트폰에서 제로페이 모바일상품권 취급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인당 액면가 기준 월 70만 원(실제 지불금액 63만 원)까지 10%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다. 보유 한도는 200만 원이다.

상품권 액면가의 60% 이상 사용 시 할인지원금을 제외한 잔액을, 상품권 구매 후 7일 이내 취소 시에는 지불한 금액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또한 상품권 취급 희망 업소는 제로페이 홈페이지 또는 한국간편결제진흥원 고객센터를 통해 가맹점 신청을 하면 된다.

문석진 구청장은 "서대문사랑상품권에 대한 큰 관심에 감사드리며, 올 하반기에도 많은 주민 분들께서 지역화폐 사용으로 동네 상권 살리기에 힘을 더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상순/기자

이정훈 강동구청장, '청년 창업가 네트워킹 데이' 참석

이정훈 강동구청장이 지난 2일, 강동구청 5층 대강당에서 열린 '청년 창업가 네트워킹 데이'에 참석했다.

'MZ 세대는 말이야~' 2021. 청년 창업가 네트워킹 데이는 청년해냄센터&청년work-play타운, 서울청년센터 강동오랑이 공동으로 주관하여 진행했다. 청년(예비) 창업가의 다양한 활동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커뮤니티 활성화를 제고하기 위해 지역 내 청년(예비) 창업가를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이번 행사는 MZ 세대로 산다는 것, 직장 내 커뮤니케이션, MZ 세대의 트렌드 분석, 타깃 마케팅 방안 등을 주제로 한 특강과 토크 콘서트를 오프라인, 온라인 형식으로 진행하여 온라인 참여자 포함하여 총 150여 명이 참여했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서 창업가 간 정보 공유와 상호 교류를 통해 협력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구는 다양한 청년정책을 추진하여 도전하는 여러분들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규석/기자

구로구, 중소·벤처기업 온라인 진출 지원한다

우수 기술, 제품 보유한 업체 10곳 대상… 이달 21일까지 인터넷 접수

구로구가 벤처기업협회와 함께 중소·벤처기업의 온라인 진출을 지원한다.

구로구는 "우수한 기술과 제품을 보유하고 있지만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기업을 발굴해 네이버스토어, G마켓 등 오픈마켓 입점을 돕는다"고 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가 가능한 제품을 제조하거나 유통하는 창업 7년 이내의 관내 중소·벤처기업 10곳이다.

구로구는 마케팅 전문 업체를 통해 기업별 특성에 적합한 오픈마켓 진출을 지원한다.

마켓별 특징과 판매 전략에 따라 맞춤형 제품 상세 페이지, SNS 마케팅 페이지 제작을 돕고 제품 사진 촬영, 동영상 제작, 스마트스토어 광고 등 홍보 컨설팅도 제공한다.

오는 10월에는 컨설팅을 통해 성과가 나온 기업을 소개하고 홍보하는 '마케팅 성과공유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사업 참여 업체, 컨설팅 전문가, 벤처기업협회 등이 참여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회사·제품 소개서, 사업자등록증 등의 서류를 갖춰 이달 21일 오후 5시까지 벤처기업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구로구와 벤처기업협회는 서류심사, 제품의 적합성·시장성·독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참여 기업을 선발할 예정이다.

구로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관내 중소·벤처기업들의 실질적인 매출 증대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미성/기자

부평구, '만월산 배롱나무길'을 '부개산 배롱나무길'로

지역 역사성 반영해 구민 정주의식 높여

부평구는 최근 부평동 산15-9 일원 부개산 등산로 배롱나무길 표지석의 산 이름을 지역의 역사성을 반영해 기존 '만월산'에서 '부개산'으로 변경했다.

부개산은 부평구에서는 일신동과 부개1동, 부평6동, 부평2동에 걸쳐 있으며, 남동구에서는 간석3동과 접해 있다. 인천가족공원과 17사단이 위치한 부평의 대표 산이다.

구는 지난 2009년 '만월산 꽃동산 조성사업' 일환으로 해당 지역의 등산로를 재정비하면서 등산로 이름을 '배롱나무길'로 명명하고, '만월산 배롱나무길'이라는 표지석을 설치했다.

그러나 당시의 명칭은 이에 앞선 지난 2005년 7월 개통한 '만월산 터널'의 명칭 대표성에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부평 지역사에서는 해당 산의 명칭을 부개산으로 명시하고 있다.

향토사학자이자 부평문화원 초대 원장을 지낸 조기준 옹의 '부평사연구'(1994)와 '지명유래지: 부평의 땅 이름'(1999)에 따르면 일제강점기 당시 '명치정'으로 불리던 해당 지역의 이름을 1946년 1월 1일 인천부 고시 제62호를 통해 '부개동'으로 개칭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부개동'으로 변경한 이유는 지역 주민들이 인근의 금마산(일신동)의 이름 없는 봉우리를 '부개봉', 또는 '부개산'으로 불렸기 때문이었다.

부평구는 이 같은 지명 유래를 근거로 구민들이 지역에 대한 정주의식과 애착을 높이고, 지역의 정체성을 이어가고자 '만월산 배롱나무길'을 '부개산 배롱나무길'로 변경하게 됐다.

차준택 구청장은 "앞으로도 구민이 지역의 대표 산인 부개산에서 건강을 관리하고, 주민 소통의 장으로 쾌적한 산림휴양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순희/기자

소래습지생태습지공원 경관특성화를 위한 여가녹지(가칭'연꽃공원') 개방

인천광역시는 7월 7일부터"소래습지생태공원 여가녹지 조성공사"를 마무리하고 시민들에게 공원(가칭'연꽃공원')을 전면 개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방되는 공원지역은 소래습지생태공원의 북측 관문으로서 1996년 염전을 폐쇄하고 둑을 쌓아 바닷물 유입을 막은 기수지역으로, 지난 2000년 공원(소래습지생태공원)으로 결정되었으나, 조성이 지연되면서 일부 주민들의 무단 경작으로 인한 악취와 경관 저해로 수많은 민원이 발생했던 지역이다.

인천광역시에서 2019년 이 지역에 대한 토지 보상을 마무리 하고, 같은 해 경관 특화 공원조성사업을 추진을 위한 국토부 여가녹지 조성 국비 보조 사업으로 선정돼 40,000㎡ 면적에 연못 3개단지를 조성하고 연꽃 8,350주를 식재하였으며 주민편익시설인 정자와 원두막 등을 설치했다.

또한 설계 단계부터 소래습지생태공원의 정체성인 습지와 연꽃을 테마로 하는 경관특성화 공원을 계획했으며, 특히 인근 만수 수질환경사업소에서 방류되는 재이용수 활용은 유한(有限)한 자원을 재활용해 유지관리 비용을 절감토록 계획했다는 점에서 환경특별시 인천을 알릴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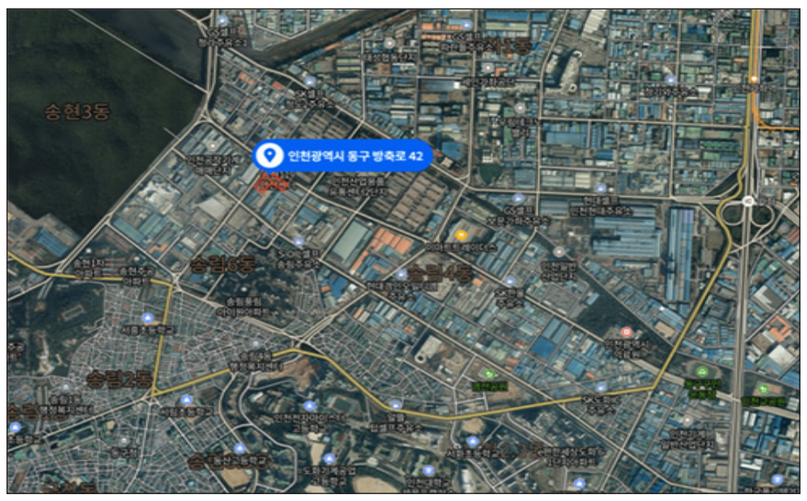
공원 옆에 위치한 서창에코에비뉴 아파트의 주민대표는 "이번 사업을 통해 불법 경작으로 인한 악취 문제가 해결됨은 물론 경관이 개선돼 주민 모두가 좋아한다"라고 말했으며,

서치선 시 인천대공원사업소장은 "소래습지생태공원 여가녹지 조성사업은 자원을 재이용하고 공원에 특성을 부여해 특화시켰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이번 개방되는 여가녹지와 함께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생태전시관 앞 친수공간 조성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해 많은 시민들이 여가와 운동을 즐길 수 있는 대표적인 습지생태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김종남/기자

인천연료전지(주), 수소연료전지발전소 준공

연간 3억 2천만kWh 전기 생산, 8만 7천여 가구 공급



인천광역시는 2019년 11월 인천시와 동구청, 주민측 비대위, 사업자간 소통을 통해 합의점을 찾아 추진했던 인천시 동구의 인천연료전지(주) 발전소가 7월 2일 마침내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박남춘 인천시장을 비롯해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허종식 국회의원, 이성만 국회의원, 한국수력원자력 정재훈 사장 등 이 지역 주민들과 함께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동구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사업은 지난 2017년 6월, 인천시와 동구청, 한국수력원자력, 두산, 삼천리, 인천종합에너지(주)가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추진됐지만, 안전성 등을 우려한 지역 주민과의 갈등으로 2019년 1월 공사가 중단됐다.

이후 인천시가 주민 측 비대위와 동구청, 사업자 등을 한데 모아 협의체를 구성하고, 소통을 통해 접점을 찾은 끝에 19년 11월, 극적으로 민관 합의를 이끌어내 공사를 재개하게 됐다.

인천연료전지(주)는 한국수력원자력 60%, 삼천리와 두산건설이 각 20%씩 공동 출자한 회사로 이번에 준공한 수소연료발전소는 발전용량 39.6MW로 연간 8만 7천여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규모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오늘 이 자리는 시와 동구청, 사업자 그리고 주민 여러분이 함께 끊임없이 소통을 위해 노력한 민관 협치의 소중한 결과물이기에 일반적 사업 준공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밝히고, "오늘이 인천 친환경 수소에너지시대 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인천연료전지(주)는 상업개시일로부터 20년간 운영되며, 연간 3억2천만kWh의 전기를 생산해 인천 동구 일대 8만 7천여 가구에 공급하고 2만 6천여 가구가 사용 가능한 열에너지도 공급할 예정이다. 또한 연료전지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주민체험 홍보관도 운영 중에 있다.

김종남/기자

(재)인천광역시 계양구 인재양성교육재단 제4회 장학생 선발

(재)인천광역시 계양구 인재양성교육재단은 6일 제4회 장학생 37명을 선발하여 4,089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장학금 선발 분야는 진학분야 13명, 학업우수 분야 10명, 드림 분야 14명이며 장학금 수여식은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진행했다.

박형우 계양구청장과 재단 이사들이 참석하여 장학증서를 수여했다. 수여식에 참석한 한 학생은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매우 기쁘고, 학비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장학금이 큰 도움이 되었다"며 "앞으로도 장학 사업을 계속해 주셔서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봤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노경 이사장은 "재단에서 추진하는 장학사업이 계양의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을 지지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박형우 구청장은 "자신의 가능성을 믿고, 열심히 학업에 정진하여 계양을 빛내는 인재가 되기를 기대하며, 수혜 학생들이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선순환이 계속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로 4회째 장학생을 선발한 계양구 인재양성교육재단은 2019년부터 총 146명에게 1억 6천2백여 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했다.

최재은/기자

성동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지방정부협의회' ESG 온라인서 공론해

서울 성동구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이하 협의회) 주관으로 지난달 9일부터 전국 지방정부 회원 단체장을 대상으로 'ESG 온라인 강의 및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번 토론회는 3주간 총 3회에 걸쳐 실시, ESG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ESG 경영환경 변화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 국내 유명 기업 및 관련 단체 대표를 통해 ESG 총론을 설명하고 지방정부의 역할 등에 대해 논의하는 기회가 마련되었다.

'ESG 총론설명과 함께 지방정부의 역할'이란 주제로한 1차 강연에서는 '서스틴베스트' 류영재 대표이사와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윤진수 사업본부장이 발표 및 토론을 실시, ESG의 개념 정립 필요성과 ESG 시대, 지자체 대응에 필요한 실행 방안에 대해 시사점을 주었다. 특히, ESG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며, 지자체장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이어 2차 강연에서는 'ESG 시대, 지방 정부의 혁신 리더십'이란 주제로 UN SDGS 협회 김정훈 사무대표가 강연을 했다. ESG 확산의 원인과 주요국 정부 정책에 대한 이해 및 대응방안, 지방정부 ESG 참여 및 역할 대응 등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ESG 시대, Social의 측면에서 지방 정부의 역할'에 대해 'Factory8' 신현암 대표가 마지막으로 강의했다.

협의회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대응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하여 2016년 6월 창립되었다. 현재 서울 22개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여 전국 42개 기초자치단체가 동참하고 있다.

협의회 고문을 맡고있는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2016년 초대 회장(1, 2기)으로 선출되어, 5년 여 간 협의회를 이끌어왔으며, 협의회 소속 자치단체들과 함께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공동대응을 하면서, 젠트리피케이션을 사회적 이슈화하고, 방지하기 위한 노력들을 기울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시행령이 개정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뒀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현재 국내 ESG는 기업과 국가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어 'ESG 시대, 지방정부의 역할과 혁신적 리더십' 등에 대해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강연을 기획하게 되었다"며 "ESG는 국가신용등급 평가에서도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며 ESG 시대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강성원/기자

인천 동구, 민·관·군·경 통합방위태세 확립 위한 2021년 화랑훈련 실시

인천 동구는 5일부터 4일간 민·관·군·경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2021 화랑 훈련'을 실시한다.

구는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통합방위지원본부를 축소 운영하고 안전관리과장을 단장으로 통합방위지원본부를 5층 상황실에 설치해 동구청, 507여단1대대, 중부경찰서 3개 기관이 합동으로 총괄지원반, 의료·구호지원반, 통신·전산지원반, 산업·수송·장비지원반 등 7개 반을 운영할 방침이다.

훈련은 비상대비계획, 현장 확인점검, 통합방위사태 선포에 따른 통합방위지원본부 및 군경합동상황실 운영과 군 화랑훈련 사태목록과 연계한 상황조치훈련 등을 실시하고 민·관·군·경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해 지역주민의 안보의식 고취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훈련기간에 지역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해 각자의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문제점과 미비점이 발견되면 시정 보완해 향후 완벽한 국가비상대비태세를 확립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유주/기자

정부지원 대출 빙자 불법광고 문자 주의! 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 추진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경찰청, 금융감독원은 최근 '정부 지원 대출 보증'을 빙자한 불법 대부 광고 스팸 문자가 증가하여 이에 따른 국민의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확산되고 있는 보이스피싱·스미싱 유형은 '정부특례보증대출 지원'을 사칭하고 'KB국민', '신한' 등 금융권 은행의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금융위원회', '신용보증재단', 국민행복기금', '버팀목 자금 플러스' 등의 문구를 삽입하여 정부 및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발송한 문자 메시지로 오인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해당 문자메시지는 시중은행에서 판매하는 금융대출상품 내용을 구체적으로 안내하며 급전이 필요한 소상공인과 고령층 등 취약계층에게 대출 상담을 유도하여 보이스피싱으로 이어지는 전형적인 사기 수법이다.

특히, 대출 신청기한을 임박하게 기재하고 대출이자를 모두 정부에서 지원한다는 문구 등으로 수신자의 심리를 교묘하게 자극하는 한층 진화된 수법을 활용하여 국민에게 금전적 피해를 주고 있다.

또한, '21년 7월 7일부터 법정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인하됨에 따라 향후 대출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불안심리를 이용해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불법 대부 스팸 문자가 증가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사업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협력하여 7월 5일부터 각 통신사 명의로 가입자에게「불법 대부 광고 스팸 문자 주의 안내」문자 메시지를 순차 발송하고, 알뜰폰 가입자에게는 요금고지서로 피해예방 정보를 안내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대부업체와 거래시 등록여부를 반드시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서 확인하고, 금융회사 사칭광고로 의심되는 경우 반드시 해당 금융회사의 대표번호로 직접 전화하여 확인하거나, 금융회사의 창구로 직접 방문하여 문의할 것을 당부하였다.

경찰청은 불법 대출을 빙자한 통신금융사기에 엄정 수사하는 등 단호하게 대응할 계획이며, 수사 중 확인되는 조직적 범행에 대하여는 범죄단체가입·활동죄 등 죄명을 적극 의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 한상혁 위원장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불법 대부 광고 문자 등으로 인한 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과 신속한 대처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불법 스팸 방지 및 피해구제를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실효성 있는 해결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광수/기자

대전시 특사경, 불법영업 폐기물업체 6곳 적발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5월 1일부터 2개월간 관내 폐기물처리업체 및 미신고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폐기물 처리 불법행위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하여 폐기물관리법 등을 위반한 6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내용을 보면 △폐기물처리신고 미이행 5건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 1건 이다.

이번 단속은 부적정 처리로 인한 사회적·환경적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관내 폐기물처리업체 및 미신고 우려 사업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최근 폐기물처리업체 및 공사장 생활폐기물 관리체계 부실 등을 악용하여 사업장 내 폐기물을 '무단 방치' 하거나 임야 등에 '불법투기' 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단속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주요 위반사례로, 폐지, 고철, 폐포장재 등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거나 재활용하는 자로서 사업장 규모가 1,000㎡ 이상이면 폐기물처리신고를 하여야 하나 ㄱ, ㄴ 사업장의 경우 약 1,500㎡ 규모의 고물상을 운영하면서 소규모 고물상에서 수집한 고철, 비철 약 50톤을 보관하면서 폐기물처리신고를 하지 않았다.

폐가전제품 및 폐타이어, 헌옷 등을 수집·운반하거나 재활용하는 자는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폐기물처리신고를 하여야 하나 ㄷ, ㄹ 사업장은 학교 등 공공기관 및 소규모 고물상 등에서 폐 컴퓨터 등 가전제품을 수집·운반하여 약 10톤을 보관하면서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지 않아 적발되었다.

또한, ㅁ 사업장은 개인들로부터 헌옷 등을 수집·운반하여 약 6톤을 보관하면서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지 않아 적발되었으며, 고무제품을 생산하는 ㅂ 제조업체는 대기배출시설인 정련시설 및 가황시설을 가동하면서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아 적발되었다.

대전시 특사경은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의 위반자에 대해 모두 형사입건하고 위반사항은 관할 기관 및 자치구에 통보하여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유세종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요즘에도 사익을 챙기기 위해 폐기물 방치 · 투기 등 불법사례가 만연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지능화 되어가는 폐기물 범죄에 대해 다각적이고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정화/기자

구미시, 통합관제센터 방범용 CCTV(2,635대)를 연계한 25시,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구미시는 원룸 밀집 지역과 골목길을 중심으로 생활쓰레기 불법투기가 증가함에 따라 깨끗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통합관제센터 방범용 CCTV(2,635대)를 활용한 불법투기행위 근절에 나섰다.

시는 올해 7월부터 기존 운영 중인 불법투기 감시용 CCTV(171대)와 통합관제센터 방범용 CCTV(2,635대)를 연계하여 불법투기 행위를 실시간으로 감시하여 무단투기에 대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해졌다.

특히, 통합관제센터 요원이 25시간 모니터링을 하므로 불법투기 행위를 적발 및 예방하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재일 자원순환과장은 "제102회 전국체육대회 및 제4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도모하고, 깨끗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자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력하여 단속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구미시는 CCTV 운영뿐만 아니라 불법투기 신고포상금,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행복홀씨 입양사업, 청소 잘하는 집 등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남궁영기/기자

경상남도, 산양삼 불법 유통 행위 합동 특별단속 나선다!

수입삼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행위 집중 단속

경상남도는 산청, 함양, 거창군 지역 내 읍·면 산양삼 판매장 및 5일장을 중심으로 위법·불량 산양삼이 유통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7월 7일부터 8월 31일까지 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도, 관련 시·군 산림과 및 지역 산림조합 등과 합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산양삼은 법적으로 특별관리임산물로 지정돼 있어 파종이나 식재하기 전 임업진흥원에서 생산 적합성조사를 받아야 하며 품질검사에서 합격한 산양삼만이 판매와 유통이 가능하다. 그러나 최근 청정임산물로 부각되기 시작하면서 재배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불법유통도 늘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재배 유통업자들이 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불량 삼이나 인삼 또는 수입삼을 국내산 산양삼으로 둔갑시켜 전통시장 및 인터넷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다.

특별관리임산물(산양삼)은 신고를 하지 않고 재배할 경우 관련법(임촉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품질검사를 받지 않고 유통·판매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경남도 윤동준 산림휴양과장은 "대표적 청정임산물인 산양삼을 찾는 사람들이 늘면서 재배기간이 짧은 인삼이나 수입 산양삼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많게는 한뿌리 당 수십배까지 부당이익을 남기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 실정"이라고 단속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고부가가치 임산물인 산양삼을 소비자가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건전한 유통문화가 정착될 때 까지 불법유통 계도와 단속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광용/기자

익산시, 악취 유발 '가축분뇨 배출시설' 강력 단속

익산시가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강력 단속한다.

시는 이달부터 다음달까지 축산폐수 무단방류로 인한 수질오염 예방 등 악취를 유발할 수 있는 요소들을 개선하기 위해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무허가(미신고) 가축분뇨 배출시설, 가축분뇨 배출시설 불법 증축 여부, 관리기준 준수 여부, 노후시설 관리 실태 파악 등이며 불법행위가 우려되는 장마철에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시는 축산농가의 자율적 관리를 유도하되 고의·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업체와 농가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고발 등으로 대처할 예정이다.

시는 올해 현재까지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허가(신고) 없이 설치·운영하거나 관리시설 미준수, 무단방류 등으로 31건의 행정처분을 진행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현재 무허가 축사는 가축분뇨의 관리 실태가 미흡하고 관련 법률에 대한 인식조차 미약한 실정이다"며 "시에서 지속적인 관리와 무허가 시설에 대한 단속집행 등 강온전략으로 모든 시민이 상생할 방법을 추진하겠다" 고 전했다.

이선수/기자

홍성군, '식중독 예방' 요양시설 및 산업체 집단급식소 합동단속

홍성군 특별사법경찰팀은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식중독 예방으로 안전한 먹거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요양시설 및 산업체 집단급식소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홍성군 및 충청남도, 타 시·군 특사경이 합동단속반을 편성, 7월 5일부터 7월 23일까지 3주간 실시될 예정이며, 단속대상은 관내 요양시설 및 산업체 집단급식소 등이다.

주요 단속사항은 ▲집단급식소(50인 이상) 신고 여부 ▲원산지표시 여부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준수 여부 ▲위생적 취급기준 및 집단급식소 운영자 준수사항 준수 여부 ▲식재료 공급·유통·구입·보관·조리·배식 단계별 위생관리 사항 준수 여부 ▲조리기구 및 과일·채소류의 살균·소독 이행 여부 등이며, 코로나19 방역수칙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도 병행할 예정이다.

김윤태 안전관리과장은 "1회 조리한 음식으로 다수가 취식하는 형태인 집단급식소는 식중독 및 코로나19 등의 발생에 취약할 수 있는 만큼, 이번 단속을 통해 우리 군의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원호/기자

유성구, 불법 현수막 없는 클린유성 조성 본격 시동

대전 유성구는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불법 현수막 정비 및 현수막 지정게시대 증설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신호등을 비롯한 교통시설물 및 인도의 가로수 등에 무질서하게 걸려있는 불법 현수막은 보행자에게 시각적인 피로도를 높이고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교통안전에 위협이 되는 등 많은 민원을 야기하고 있다.

특히 공공용 현수막의 불법 게시 사례가 다수 발생되고 있어, 옥외광고물법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설치기간이 30일 이내인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 중, 시설물 관리, 적법한 정치활동 또는 노동운동을 위한 집회, 안전사고 예방, 교통안내 등을 제외한 규정위반 공공용 현수막도 상업용 현수막과 함께 강력 정비할 계획이다.

더불어 오는 7월 16일부터『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정당 현수막을 행정용 현수막 게시대에 게시가 가능해지면서, 그동안 관행적인 불법 정당현수막 게시를 근절하고 정당 현수막을 합법적인 게시대로 유도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현재 5단형 16개소, 저단형 39개소 등 총 119면인 행정용 게시대를 올해 하반기에 추가 증설해 5, 6단형 22개소, 저단형 54개소 등 총 170면으로 늘릴 예정이며, 상업용 게시대 또한 증설해 불법 광고물 난립을 예방할 계획이다.

정용래 구청장은 "합법적인 광고공간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도시미관 저해 및 안전사고 위험을 초래하는 불법 현수막 등 불법 광고물을 정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경관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고정화/기자

진천군, 불법주정차 단속유예시간 연장 실시

진천군이 불법주정차 단속유예시간을 현행 20분에서 코로나19 안정시까지 30분으로 연장한다고 6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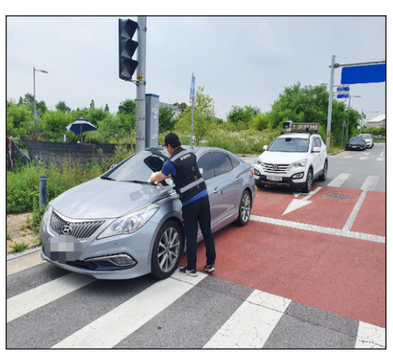
이번 조치는 코로나19로 인한 장기적인 경제침체 등을 해소하기 위해 관내 전 지역에서 실시되며 오는 18일까지 행정예고 실시 후 19일부터 일제 적용된다.

단, '도로교통법' 제32조~34조에 규정된 횡단보도, 소화전 등 즉시단속구간은 적용이 배제된다.

현재 단속시간은 평일기준 09:00~20:00까지이며 토·공휴일과 점심시간인 12:00~14:00에는 단속을 유예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에 추진되는 단속유예시간 연장을 통해 짧은 유예시간으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주정차 유예시간 확대 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정차 단속유예시간 연장으로 침체돼 있는 지역상권이 활성화되길 바란다" 고 밝혔다.

최만식/기자



수원시, '인도네시아 공무원들' 환경도시 수원 정책 배웠다

수원시가 인도네시아 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수원시 환경도시 조성 정책 비대면 연수'가 마무리됐다.

수원시와 수원시국제교류센터는 지난 6월 23일부터 7월 2일까지 수원시의 국제자매우호도시인 반둥시 공무원, 중앙정부 공무원, 주 정부 관계자 등 25명을 대상으로 화상회의 프로그램·온라인 교육플랫폼을 활용해 온라인 연수를 진행했다.

수원시 환경 분야 전문가가 수원컨벤션센터 화상회의실에서 수원시 환경 관련 정책을 소개하고, 온라인 세미나를 진행했다.

강사들은 ▲수원시 폐기물 관리 정책, 분리수거·생활폐기물 처리 과정 ▲태양광발전 사업 등 수원시민 주도의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 사례 ▲빗물을 활용한 물 순환도시 조성 사업 ▲수원시의 주요 환경교육 모델, 성과 ▲수원시 상수도 현황, 하수 관리 정책·처리 기술, 시설 등을 설명했다.

연수 참여자들은 교육 내용을 바탕으로 인도네시아에서 실행할 수 있는 환경정책을 수립하고, 프로젝트·캠페인 등을 기획해보는 '액션플랜(실행계획 수립) 워크숍'을 진행했다.

연수생들은 쓰레기·오수로 인한 하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학교·기업·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환경 교육을 강화하고, 하천 인근 산업체를 조사해 지속해서 관리·감독하는 등 시민사회와 거버넌스를 강화하는 실행계획을 수립했다.

인도네시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상수도 개선 관련 정책·지침을 마련하는 등 제도를 강화하는 실행계획도 수립했다.

연수 참여자들은 "우수한 사례를 배울 수 있었던 의미있는 연수였다"고 입을 모았다.

반둥시청에서 일하는 크리스틴 렛추(Christine Mugia Restu)씨는 "환경에 대한 반둥시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며 "수원시의 우수 사례를 배우며 시민들의 환경 보호 의식을 높일 수 있는 제도를 고민했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내무부에서 일하는 압둘 아지즈(Abdul Aziz)씨는 "한국의 환경정책, 수원시가 시행하는 훌륭한 환경 정책을 배울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수원시국제교류센터 관계자는 "앞으로 지속해서 연수 참여자들의 활동을 모니터링하며 관계기관과 시민단체가 연수생들과 교류하도록 중계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또 연수생 온라인 워크숍을 진행해 액션플랜을 현지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온라인 연수는 지난해 수원시국제교류센터와 수원시가 함께 제안한 '시민환경교육 및 폐기물·수자원 관리 기술 전수를 통한 환경도시 조성 연수사업'이 2021년 한국국제협력단(KOICA) 정부 부처 제안 글로벌 연수사업으로 선정되면서 진행됐다.

2022~2023년에는 수원시 자매우호도시인 베트남 하이즈엉성, 캄보디아 시엠립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정근/기자

박승원 광명시장, "두려워 하지 말고 가슴 속 이야기 맘껏 해라" 청년들에게 당부

광명시는 청년들이 직접 참여하여 청년정책을 기획하고 제안하는 50억 규모의 '청년숙의예산' 토론회를 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청년위원회 위원을 비롯한 청년 60명이 참석해 청년이 살기 좋은 광명을 만들기 위해 어떤 것이 필요한지 공간·문화·예술·주거·일자리·참여·활동 등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청년숙의예산 토론회' 는 청년들이 제안한 의견으로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청년정책을 수립하고자 지난해 첫 시행 후 올해 두 번째를 맞았다.

지난해 청년숙의예산 토론회에서 청년정책 홍보 플랫폼 구축, 청년신혼부부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 청년정신건강 프로젝트, 공모사업 확대, 청년센터 건립, 청년예술창작소 건립 등 12개 사업을 결정하고 52억 원을 올해 예산에 반영해 추진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광명시 청년문제 진단, 문제해결을 위한 청년 사업제안, 모둠별 사업선정으로 진행됐으며 7월 24일 2차 토론회를 열어 사업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청년숙의예산 토론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8월 전문가와 담당부서 검토를 거쳐 내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날 시는 토론회 개최에 앞서 시장직속 청년위원회 2기 위촉식을 진행했다. 청년위원회는 2019년에 지자체 최대 규모인 5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1기 위원들의 2년 임기가 종료되어 대학생, 취업준비생, 직장인, 청년CEO등으로 새롭게 2기가 구성됐다.

서주원 청년위원은 "광명시 청년위원으로 활동하게 되어 뿌듯하다. 첫 활동으로 청년숙의예산 토론회에 참석하게 되어 기쁘고 앞으로 광명시 청년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광명시 청년위원회에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청년숙의예산 토론, 청년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 여러분의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고 미래를 준비하는 훈련의 장으로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특히 박 시장은 "첫째, 두려워하지 말고 가슴 속 이야기를 해라, 여러분들의 생각이 세상에 퍼지고 그 힘으로 세상이 바뀔 수 있다. 둘째, 시대의 변화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사람들과 공유하고 집단지성의 힘을 키워가는 것, 그것이 청년의 강점이고 그 힘이 대한민국을 바꿔 나갈 수 있다. 셋째, 최고의 리더십은 경청이다. 자신의 이야기를 하되,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경청하면서 묻고 또 묻고 서로 협력하고 토론하는 소통의 장을 만들어 가길 바란다"고 인생 선배로서의 당부를 잊지 않았다.

전순희/기자

성남시, 법조단지 신흥동 옛 1공단 터로 이전

법원행정처, 법원청사 건축심의위원회 '채택'

법원과 검찰청사가 있는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법조단지가 신흥동 옛 제1공단 터로 이전한다.

성남시는 법원행정처가 법조단지 청사 이전에 관한 '법원청사 건축심의위원회'를 열어 해당 안건을 적합 의견으로 채택했다고 7월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성남시와 수원지방·가정법원 성남지원,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성남 법조단지 이전·조성 사업'을 본격화하게 됐다.

성남시가 신흥동 2460-1번지 일원 4만3129㎡를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로 결정·고시하면, 성남지원과 성남지청은 법원·검찰청사를 지어 법조단지를 조성한다.

세부 건립 규모와 착공 일정은 추후 성남지원과 성남지청이 협의해 결정한다.

1981년 수정구 단대동 2만1268㎡에 건립한 현 법조청사는 건물이 낡고 업무·주차 공간이 비좁아 근무자와 방문객 모두 불편을 겪고 있다.

성남지원과 성남지청은 법원·검찰청사를 1997년 확보한 구미동 190번지 3만2061㎡로 이전을 검토하다가 원도심 공동화를 우려한 성남시와 뜻을 함께해 이번 신흥동 이전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새로 조성되는 신흥동 법조단지 부지 바로 옆에는 내년 3월 성남시 제1공단 근린공원이 4만6614㎡ 규모로 완공된다.

이로써 지난 2004년 30여 개 공장이 모두 이전해 현재까지 빈터로 남아있는 수정구 신흥동 제1공단(1974년~2004년) 부지는 대민 법무 행정 공간이자 시민 휴식 공간으로 탈바꿈해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전망이다.

이성율/기자

가평군, 북한강 천년뱃길 조성된다.

가평군이 북한강 옛 뱃길을 복원하여 수변생태관광을 활성화하고 친환경 뱃길 확보를 통한 국토 생명의 젓줄인 북한강의 재생기틀 마련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천년뱃길 조성사업'이 가속도를 내고 있다.

5일 군에 따르면 내년 말까지 북한강 일원에 북한강 뱃길 프로그램 기획 및 통합안전관리센터 구축, 북한강 나루터 정비 7개소(공공 4개소, 민간 3개소), 전기추진선 등 친환경 선박 3척 건조 및 운항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업에는 남이섬, HJ마리나, 청평페리 등 민간기관이 함께 참여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524억(공공 150억, 기타 374억)여 원이 들어가는 등 신규 관광자원 발굴 확대로 동반성장을 이루게 된다.

앞으로 군은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설계비 3억원을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하고 특별조정교부금 신청 등 사업비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키로 했다.

이와 관련해 군은 주민의견을 청취해 사업에 반영하고자 가평읍·설악면·청평면 지역주민들과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겸한 천년뱃길 시범운항을 실시한다.

시범운항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작년 10~11월 2개월에 걸쳐 총 7회 387명을 대상으로 체험을 통해 문제점 도출 및 홍보에 나선바 있다.

운항일은 수상레저사업이 성수기에 접어드는 만큼 매주 월요일에 갖기로 하고 이달 5일 첫 운항을 시작으로, 12일, 19일 3회에 걸쳐 실시된다.

탑승인원은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해당 읍면에서 추천한 80여명으로 제한되며 운항노선은 남이섬 선착장(가평읍 달전리)-효정마리나(설악면 송산리)-남이섬(메타나루)-남이섬 선착장으로 이어지는 구간으로 약 3시간 30분이 소요된다.

군은 북한강 천년뱃길 조성사업을 위해 지난해부터 북한강 친환경 유람선 MOU체결, 경기해양레저포럼 주제발표, 이해관계자 사업설명회 개최, 원주지방국토관리청·행정안전부·경기도·춘천시와 업무협의를 진행했다.

군 관계자는 "북한강유역의 수변관광자원이라는 특수한 지리적 관계, 강원도와 경기도의 경계선상에 위치한 첨단 행정구역의 공간을 절묘하게 차지하고 있다는 점, 수상레저와 수변관광테마파크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 등은 경쟁대신 전략적 제휴를 통하여 서로 상생하는 길만이 최상의 방책이라"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안승남 구리시장, '제2기 시정소식지 편집위원회' 위원 위촉

구리시는 지난 7월 2일 시청 3층 상황실에서 '제2기 구리시 시정소식지 편집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갖고 위원 8명을 새로 위촉했다.

구리시 시정소식지 편집위원회는 시민들에게 시에서 추진 중인 정책과 각종 행사, 기타 정보를 전달하는 시정소식지 '구리소식' 제작의 자문 역할을 담당한다.

안승남 시장은 취임 이후 시민의 참여를 높이는 동시에 시민의 의견을 반영한 시민 참여형 시정소식지를 제작하고자 지난 2019년 7월 '제1기 시정소식지 편집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 바 있다. 제2기 편집위원들은 교육·문예 분야, 청년·창업 분야, 방송·예술 분야, 도서·출판 분야 등 총 4개 분야 8명으로 구성되었다.

이날 위촉식에는 안승남 시장이 직접 참석하여 편집위원 모두에게 각각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어 인사말을 통해 "이번에 새로 위촉되신 편집위원분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경험을 쌓으신 분들로 구리시 시정소식지의 콘텐츠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주실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2년 동안 구리시 시정소식지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구리소식지 편집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매월 1회 집합 회의를 통해 편집회의에 참여하게 된다.

최만식/기자

남양주시, 정약용문화제 추진위원회 위촉식 및 제2차 회의 개최

의정부시는 7월 5일 시청 중회의실에서'2021년 성과평가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하고, 성과평가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출했다.

이번에 위촉된 성과평가위원들은 2년 동안 활동하며, 종합성과관리 및 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성과지표 및 정성평가에 관한 사항, 이의신청 및 평가결과에 대한 심의 등의 역할을 하며 7월 5일부터 11일까지 7일간 성과지표 사전평가를 실시한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2012년부터 시행한 종합성과평가시스템은 전 직원 의견수렴 등 가장 민주적인 과정을 통해 조직 문화에 정착한 민선 5기 공약사업 중 가장 빛나는 성과물의 하나"라며, "앞으로 임기 동안 성과 중심의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와 자문으로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는 조직 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한영기/기자

'새로운 경기 제안공모 시·군 창안대회'에서 '콘텐츠 산업계의 그린넛지 캠페인' 제안 우승

경기도가 실시한 대국민 정책제안 경진대회인 '제2회 새로운 경기 제안공모 2021, 시·군 창안대회' 최종 본선에서 고양시 노경란씨가 제안한 '콘텐츠 사업계의 그린넛지 캠페인'이 일반인 제안 1등, 양주시 박민주씨가 제안한 '준등기우편 이용 장려를 통한 행정우편 예산절감 및 업무 효율화'가 공무원 제안 1등의 영예를 안았다.

도는 6일 경기도인재개발원 대강당에서 '제2회 새로운 경기 제안공모 2021, 시·군 창안대회' 본선심사를 개최했다. 현장에는 본선 참가자와 경기도 제안심사위원 등으로 구성된 전문 심사단이 참석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규정에 따라 도민 100명으로 구성된 청중평가단은 실시간 온라인 심사에 참여했다.

시·군 창안대회는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채택된 제안 중 도 및 타 시·군에에도 확산할 만한 우수제안을 공개적으로 견주는 대회로서, 제안제도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본선은 31개 시·군에서 추천한 78건의 제안 중 1차 실무부서 심사와 2차 전문가 심사를 거쳐 채택된 일반인 제안 3건, 공무원 제안 3건이 대결을 펼쳤으며, 전문가심사(60%)와 온라인 청중평가단(30%) 및 사전 여론조사(10%)의 점수를 합산해 우열을 가렸다.

일반인 제안 1등을 차지한 고양시 노경란씨의 제안인 '콘텐츠 사업계의 그린넛지 캠페인'은 소비자들에게 에코백, 텀블러 사용 등 친환경 라이프스타일을 홍보하는 콘텐츠 제작 시, 제작비 일부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넛지(부드러운 개입으로 사람들이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효과를 통해 자연스럽게 환경보호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공무원 제안 1등을 차지한 양주시 박민주씨의 제안인 '준등기우편 이용 장려를 통한 행정우편 예산절감 및 업무 효율화'는 비대면 방식의 등기 송달 서비스인 준등기우편을 행정 우편물 발송 시 이용 활성화해 등기요금 및 반송요금 예산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밖에 일반인 분야에서 ▲하남시 신평중학교 이승용군이 제안한 '스마트하고 안전한 청소년 안심길 조성'이 2등을 ▲수원시 나경식씨의 '버스 내 QR코드를 설치하여 고객의 소리 청취'가 3등을 수상했으며, 공무원 분야에서▲김포시 이미숙씨가 제안한 '폐 보도블록, 화단으로 꽃피우다'가 2등을 ▲화성시 이용근씨의 'IoT 결합 스마트폴 설치 및 확대 제안'이 3등을 수상했다.

수상한 팀에게는 심사점수에 따라 최대 200만 원부터 최소 30만 원이 지급된다.

윤영미 도 비전전략담당관은 "이번 대회에서 발표한 제안들은 실현가능성이 높고 타 지자체로 확산될 수 있는 제안"이라며 "경기도는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선정된 제안은 경기도 해당부서 검토를 통해 정책으로 반영하거나, 경기도 전역에서 실시될 수 있도록 각 시·군에 전파할 계획이다.

최정근/기자

안산시 윤화섭 시장, "민선7기 새로운 1년, 주거복지와 안심보육 실현할 것"

윤화섭 안산시장은 민선7기 3주년을 맞아 "새로운 1년 동안 주거복지, 안심보육을 실현하고, 안산 랜드마크가 될 초지역세권 개발을 위한 초석을 다지겠다"고 밝혔다.

윤화섭 시장은 5일 유튜브를 통한 시민보고회에서 "과거 체험하지 못한 정책을 수립하고 실천하며 대한민국 지방자치를 선도한 안산시가 새로운 1년을 시작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민선7기 안산시는 새로운 1년 동안 ▲안산형 주택 모델 도입 ▲안심보육시스템 강화 ▲초지역세권, 가칭 '5G 메타시티' 개발 사업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한다.

시는 앞으로 수도권 3기 신도시 장상·신길2 공공택지 사업 등을 비롯해 시가 직접 참여해 짓는 공공주택에 '안산형 주택' 모델을 도입해 분양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한다.

시민 주거복지를 위한 이 모델은 분양가를 줄이고, 발생한 수익을 품질개선 등 투자로 되돌려 시민의 주거복지를 높이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윤 시장은 "안산형 주택 모델을 통해 사업 과정에서 이뤄지는 끝없는 투자로 '명품 주거공간'를 만들겠다"라며 "거주하는 시민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고, 안산의 자랑거리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아울러 집이 필요한 시민이 집값의 10%로 입주할 수 있는 '누구나집' 정책도 선도적으로 추진해 주거난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민선7기 안산시는 또한 국공립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채용시스템 개선 ▲AI(인공지능) CCTV 기술 등을 도입한다.

학부모·숙련 보육교사·어린이전문가 등 100명이 참여하는 '보육교사 채용위원회'가 국공립 어린이집 채용 과정에 면접관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기존의 채용 시스템을 개선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아동학대 원천봉쇄를 위해 기존 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에 AI기술을 접목시켜 '학대행위 발생→CCTV 관리 주체 인지→시 학대전담 부서 및 어린이집 원장 통보'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시립어린이집 3곳에서 시범운영을 거쳐 문제점을 보완해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윤화섭 시장은 "어린이집과 학부모 의견을 적극 수렴해 부모와 어린이집 간 신뢰가 두터워질 수 있도록 돕겠다"며 "시범운영을 거쳐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민선7기 안산시는 아울러 2024년이면 5개의 철도가 만나는 초지역세권을 새로운 안산 랜드마크로 떠오를 수 있도록 초석을 다져놓는다는 구상이다.

윤화섭 시장은 "5G 메타시티는 서울 접근성은 물론, 전국 각지와 입체적으로 연결돼 품격 있는 문화콘텐츠와 상업, 교육시설이 집약될 것이다"라며 "민선7기 안산시는 최대한 속도감 있게 세부적인 청사진을 그려낼 것이고, 민선8기 시작과 함께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마칠 것이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규모로 사업이 예상되는 만큼 시는 개발 과정과 개발 이후에도 안산 인재, 안산 업체가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상생구조도 만든다.

윤 시장은 이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 안산유치를 위한 의지를 다시 한 번 강조했으며, '상호문화 특례시' 승격을 위한 청사진을 재차 밝히기도 했다.

윤화섭 시장은 "민선7기 안산시는 코로나19, 경제침체 등 위기 속에서도 시민 여러분과 함께 묵묵히 가야할 길을 걸어왔다"며 "앞으로 1년, 다가올 민선8기, 나아가 '1천년 안산'의 초석을 닦는다는 각오로 언제나 당당하고, 굳건하게, 끝까지 시민 여러분께 헌신하겠다"고 말했다.

최정부/기자

화성시, 병점복합타운(환승) 주차타워 道 공모사업 선정

화성시는 병점복합타운(환승) 주차타워 건립사업이 경기도의 '2022년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 공모사업'에 선정돼 29억 6천 3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5일 밝혔다.

화성시는 지난해 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오는 2023년 8월 준공을 목표로 4층 5단 310면 규모의 병점복합타운(환승) 주차타워의 건립을 추진중에 있다.

화성시는 병점복합타운(환승) 주차타워가 건립되면 주차난 해소는 물론 역사 인근 시민들의 환승 편의 제공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에 확보한 사업비는 부지매입비를 제외한 사업비(178억원)의 16%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 지원 등에 따른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의 경우 예산확보의 어려움이 있었으나 국·도비 확보를 위한 화성시의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사업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다.

최원교 교통지도과장은 "시민들의 주차·교통여건 개선을 통해 주민편의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주차 및 교통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시비 410억원을 투입해 봉담읍 상리 400면 규모 주차타워를 건립하는 등 공영주차장 14개소를 조성해 총 1,397면 규모 주차공간을 확보해 주민편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지난해 동탄호수공원 주차타워 건립사업에 국비 8억원, 2022년도 국비 지원사업에 향남 하길리 주차타워 건립사업비 20억원 확보를 목표로 노력하고 있다.

김남주/기자

양평군, '3!4!(쓰리!포!) 헬스투어' 참가자 만족도 높아

양평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양평군민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준수하여 추진한 소규모 단체 프로그램인 '3!4!(쓰리!포!) 헬스투어'를 지난 5월 10일부터 6월 27일까지 7주간 운영했다고 밝혔다.

'3!4!(쓰리!포!) 헬스투어'는 투어 객 3~4인을 한 팀으로 구성하여 코디네이터(헬스투어 전문가) 1명이 인솔하는 소규모 단체 프로그램으로, 개군면 내리 산수유 코스에서 당일 코스로 진행됐다.

프로그램 참여를 완료한 참가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참가자 중 96%가 '만족' 이상으로 응답하여 소규모 단체 헬스투어 프로그램에 대해 전반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고, 코디네이터가 인솔하여 자연요법, 지형요법 등을 진행하는 건강프로그램에 대해 91%가 '매우 만족', 투어 전 건강측정하고 설명하는 것에 대해 84%가 '매우 만족'으로 응답하여 헬스투어 고유의 전문가를 양성하고 건강측정 및 설명하는 프로그램이 참가자 만족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평군수(정동균)는 "코로나19로 지친 군민의 힐링을 위해 기획한 '3!4!(쓰리!포!) 헬스투어'를 기반으로 위드(with) 코로나 시대에 걸맞은 관광상품을 완성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성율/기자

경북도, 2021년 인구의 날 (7.11) 기념행사 개최

경상북도는 6일 성주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2021년 경상북도 인구의 날’기념행사를 개최했다.

경상북도는 ‘인구의 날(7.11.)’을 맞이하여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자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이철우 도지사, 정희용 국회의원, 이병환 성주군수를 비롯하여 이재인 경상북도 인구정책위원회 위원장, 이삼범 경상북도 저출산극복사회연대회의 의장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세계인구의 날(매년 7월 11일)은 세계 인구가 50억 명이 넘은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1987년 UN개발계획(UNDP)이 제정한 날로 우리나라에서는 2011년부터 국가기념일로 지정하여 기념하고 있다.

이날 기념식은 성주군 수륜중학교와 성주어린이합창단, 에코그린합창단의 공연을 시작으로 인구의 날 유공자 시상식, UCC·사진·표어 공모전 수상작 영상 상영, 기념사, 축사, 특별공연(샌드에니메이션) 순으로 진행했다.

유공자 시상식에서는 경상북도 인구정책에 기여한 9명에 대해 도지사 표창이 수여하였으며, 영남일보에서 주관한 출산장려 UCC·사진·표어 공모전 수상작이 영상을 통해 선보였다.

특히 도지사를 비롯한 성주의 어린이들과 내빈들은‘가족행복’의 중요성을 기념식 퍼포먼스를 통해 전달했으며, 더불어 ‘아이 행복한 젊은 경북’을 실현하는 다양한 메시지를 참석자들과 함께 공유했다.

이후 특별히 마련된 샌드에니메이션 공연에서는 모래를 활용해 출산장려를 비롯한 가족사랑에 대한 내용이 선보여 참석자들의 큰 관심과 호응을 받았다.

이철우 도지사는 기념사에서 “중장기 경상북도 인구정책 기본계획과 전국 최초의 지방소멸대응 종합계획 수립, 경북人포럼 추진을 통해 내실 있는 인구정책을 펼치고,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주목받는 ‘이웃사촌 시범마을’과 주거·영농·힐링이 복합된 경북형 클라인가르텐(작은정원)을 통해 은퇴한 베이비부머 세대의 귀농귀향을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어 “대학, 기업 등 민간의 창의적 역량을 융합한 연구중심으로 도정을 전면 혁신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경상북도가 다시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서고, 이와 함께 저출생과 지방소멸위기를 극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상북도는 도내 각계각층의 폭넓은 참여 가운데 인구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대책마련을 위해 인구의 날을 기점으로 한‘인구주간’을 운영한다. 교수, 연구원 등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경북人포럼’개최를 통한 인구문제의 공론화 및 지역여건에 맞는 과제 발굴을 시작으로, 저출생 인식개선을 위한‘함께 육아 실천 온라인 릴레이 캠페인’을 1차(7.6~8.21), 2차(8.26~10.25), 3차(10.28~11.27)에 걸쳐 전개한다.

김세기/기자

성주군, 꺼지지 않는 열정으로 성주군 미래 도약을 일궈나가다

변 화 와 혁 신 , 민 선 7 기 취 임 3 년 1 0 대 추 진 전 략

'군민중심 행복성주'를 군정 비전으로 민선7기의 닻을 힘차게 올렸던 이병환 성주군수가 어느덧 출범 3년을 맞이하여, 성주군은 변화와 혁신의 바람이 불고 있다.

지난 3년간 쉼없이 달려왔고 많은 고민과 노력의 결과 불가능할 것만 같았던 많은 일들을 이루어냈다.

▷군민 모두가 함께 염원하고 총력을 기울인 남부내륙고속철도 성주역 유치, ▷열정과 땀으로 각종 공모사업 및 국도비 최다 확보로 본예산 5천억 시대 달성, ▷참외 조수입 2년 연속 5천억원 돌파, ▷성주군 도시재생 뉴딜사업 1,2단계 ▷위드코로나 시대 성주문화관광 신르네상스 개막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성주 등 다양한 분야 곳곳에서 성과를 보이며 미래도약의 기틀이 마련되고 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성주군은 민선7기 10대추진 전략을 마련하여, ‘군민중심 행복성주를 완성시키겠다.’는 각오를 취임 3주년에 맞춰 발표했다.

성주의 오랜 숙원이며 군민과 함께 필사의 노력을 기울여 온 남부내륙고속철도 성주역 유치가 사실상 확정되면서 성주발전의 또다른 성장동력이 되고 있으며, 중부내륙·동서3축 고속도로와 국도30호선 6차로 확장 등 4개의 간선도로의 신설 확장이 보태지면 '1철도 2고속도로 4간선도로'가 동서남북을 관통하는 사통팔달 광역교통의 요지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이에 더해 낙동강 연안도로 군도 7호선 지방도 승격 및 제2성주대교(성주-칠곡간 광역도로) 건설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교통인프라 확충과 통합신공항과 접근성 강화 등으로 ‘혁신도시 시즌2’ 공공기관 유치에 유리한 고지 선점 뿐 아니라, 물류·유통의 거점도시로도 성장할 수 있어 성주의 새역사 창조가 가능해진다.

성주참외 조수입은 금년에도 5천억원 상회 예상되며 내년엔 6천억원 돌파의 기대감도 커지면서 참외의 본고장과 명품참외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성주참외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라이브커머스 등 전략적 마케팅과 수출판로 확대 및 지원, 신품종 신기술 개발·보급으로 참외의 무한변신을 꾀하는 동시에, 성주참외 농촌융복합 산업지구 조성 및 각종 가공식품 연구개발로 농업 분야 1조원 시대 전망도 밝게 하고 있다.

변화하는 농업트렌드 및 시장에 대응하여 참외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농업을 선도하여 모든 농업인이 행복한 부자 성주를 만드는 게 목표이다.

천혜의 자연환경 가야산과 성주댐, 과거 영남의 큰고을이라는 문화자산을 보유한 성주는 이제 경북의 숨은 관광지가 아닌 전국민이 찾아오고 싶은 명품 문화관광도시로 부상중이다.

심산문화테마파크 조성, 생활사 문화탐방로 개설, 법정 문화도시 선정, 성주호 일대 관광단지 지정, 가야산 일대 관광활성화, 성밖숲-성주역사테마파크-성산동고분군전시관을 잇는 도심지 네트워크 관광 활성화 등 굵직한 프로젝트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즐겁고 안전한 체류형·언택트 관광의 새 지평을 열어나가고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또한, 생명문화축제, 성주참외페스티벌, 성밖숲‘와숲’, 썸머아트바캉스를 일상회복 프로그램으로 추진하여 뉴노멀시대 문화관광 컨텐츠를 선도하고 성주를 생명문화의 성지로 자리매김토록 할 것이다.

총 사업비 1천억 이상이 투입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1,2단계와 별빛이 흐르는 이천친환경조성사업으로 지역에 생기를 불어넣고 성주읍 도심이 재생과 힐링의 공간으로 재탄생될 예정이다.

전국 최초 군직영 전기마을버스 운행, 임시 버스정류장 신설과 건강행복쉼터 마련, 버스정보시스템(BIS) 및 지능형교통체계(ITS) 도입, 광역환승제 추진, 공영주차장 확대, 예산(KT)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 등 교통체계 개선으로 정주여건을 도심 수준으로 차츰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

본격적인 웰니스라이프 시대가 펼쳐짐에 따라, 노인·보훈·장애인·자활·청소년 계층을 망라한 종합복지타운과 선남 복합문화체육센터, 스마트타운(경로당)을 조성하고, 생활체육 및 전문체육시설, 전지훈련 등이 가능한 종합스포츠센터를 건립하는 큰 그림을 그려 남녀노소 각계각층에 빈틈없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코로나19 선제검사와 철저한 방역관리로 방역의 원칙과 기본을 흔들림없이 지키고 예방접종의 차질없는 완벽한 마무리로 군민이 건강하고 삶이 풍요로운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가고자 한다.

선남·용암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초전 대장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가천 마수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등 사람중심 재해예방사업으로 군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있다.

또 통합바이오가스에너지화시설 설치사업, 자원순환센터(소각시설) 증설 등 성주읍 삼산리 일대 친환경 에너지 생산시설 확충으로 지속가능한 친환경 성주를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구미, 김천, 칠곡과 연계한 성주산단 대개조 추진 및 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구축, 제3일반산업단지, 스마트팜 기자재 농공(특화)단지 조성과 더불어 일자리지원센터 기능강화로 인력수급문제를 해결하고, 혁신기술 개발 지원, 수출기업 지원, 마케팅, 금융상담 등 성주군과 기업이 상생하는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다.

성주사랑상품권 확대발행,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별빛골목길 조성사업 등으로 특색있는 전통시장을 만들고 지역 소상공인 경영 안정화와 골목상권 살리기에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다.

놀벤져스 1~3호, 성주참외체험형 테마파크‘참외랑 아이랑관’, 성산동 고분군전시관‘어린이체험실’, 아이나라 키즈교육센터 등 어린이놀이시설 확충 및 운영 활성화, 청소년 과학탐구·놀이시설 건립으로 부모와 아이가 행복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성주를 위해 다양한 시설을 갖춰 나가고 있다.

더불어 성주군 Start 농-UP 지원센터를 건립하고 폐교부지 활용 개발로 청년과 귀농귀촌인 등 다양한 인구 유입으로 젊어진 농촌과 아이 목소리 가득한 거주희망 1번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2018년 4,010억원이었던 예산을 2,021년 5,220억원까지 확보하면서 본예산 6천억 시대 도약을 예고하고 있으며, 이는 작년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국도비 확보와 3배이상 늘어난 공모사업 선정 예산으로 이뤄낸 성과로써 지역발전의 밑거름이 되고 있다. 남은 기간에도 국도비 사업 및 각종 공모사업 발굴 확대로 성과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모든 공직자가 혼연일체되어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아울러 주민과의 다양한 소통창구를 마련하여 공감행정 및 격의없는 소통행정을 실천하고 적극행정으로 규제의 벽을 넘고, 공직사회에 부적정한 관행과 낡은 행정풍토를 타파하여 젊고 패기넘치는 공직분위기를 집중 조성한다.

성산포대 이전과 후적지 개발로 성산되찾기를 본격 추진하고, 세종대왕자태실 유네스코 등재 추진, 가야산 불교 역사문화자원 관광거점화 등으로 성주의 역사·문화·정신을 되찾아 자부심과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한다.

또, 성주역 연계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광역교통망을 구축하고 합천군 및 해인사와 주변지역 관광·상업·주거 지역개발 등을 연계 협력 추진 노력하고, 사드배치로 분열된 민심을 통합하고 지역발전을 견인하기 위한 지역현안 건의사업도 조속 추진할 것이다.

남은 1년이 지난 3년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때이며 위기극복을 넘어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내는 것이 민선7기의 남은 과제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이지만 지금까지 추진한 분야별 사업을 잘 매듭짓고 남은 1년이 성주군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다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밝히며,

“행정통합, 통합신공항, 자치분권, 서대구역개통, 대구외곽순환고속도로 등 성주군을 둘러싼 급격한 대내외 환경변화와 코로나로 가속화되는 새로운 세상에서 성주군은 앞으로 다가올 어떤 고비도 거침없이 대응하고 군민 한분 한분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우직한 걸음으로 흔들림없이 나아가겠다. 다가올 미래의 모습을 기대해 달라”며 포부를 내비쳤다.

한반식/기자

대구 남구청-DGB대구은행, 외식상권 활성화 업무협약(MOU) 체결

대구광역시 남구와 DGB대구은행 두 기관은 지난 6월 30일 오후 3시 남구청 2층 회의실에서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두 기관은 온·오프라인 마케팅,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한 컨설팅 교육, 금융지원 정보 제공과 금융상담 등 다양한 경영 자문을 지원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격고 있는 남구 외식상권 활성화를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청년 외식 창업 예정자와 이미 외식 창업을 한 소상공인 외식업소에 대한 경영 자문을 지원함으로써 영업자들이 성공적인 외식 창업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할 방침이다.

그동안 남구는 맛집 발굴 홍보와 외식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전 국민들이 애용하는 유튜브를 활용하여 ‘먹튜브를 찾아라! 남구 유튜브 공모전’을 실시해 왔다.

이와 함께 DGB대구은행에서도 지난 5월 ‘어깨동무종합지원센터’개소를 시작으로 대구·경북 숨은 맛집 찾기를 위한 ‘숨맛꼭질’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다.

남구청과 DGB대구은행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오는 8월경 남구 속 숨은 맛집 발굴 홍보를 위해 유튜브 먹방 공모전을 공동으로 개최하기로 했다.

그 외에도 남구는 지난 4월 대구·경북에서는 유일하게 젊음의 거리인 앞산카페거리에 청년키움식당을 유치하여 청년 예비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영업장 운영 기회를 제공하고 전문가들의 다양한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여기에 DGB대구은행의 SNS 마케팅, 세무, 경영 등 소상공인들을 위한 맞춤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받아 청년 예비 창업자들이 외식 창업의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힘을 더해 나갈 계획이다.

조재구 남구청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남구청과 DGB대구은행 두 기관이 지역 소상공인들을 적극 지원하고 더 나은 외식상권 활성화를 위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성훈 DGB대구은행장은 “코로나19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그리고 전통시장 상인들이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상황이 녹록하지 않다. 이번 상호 업무협약을 통해 대구시 남구청과 협업하여 어려운 지금 상황에 대한 돌파구를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남궁영기/기자

의성장날 쇼핑몰, 햇농산물 이벤트 실시

의성군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농가를 위해 의성군 대표 농특산물 쇼핑몰인 의성장날에서 7월 한달간 햇농산물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의성장날’쇼핑몰은 이번 햇농산물 이벤트 기간동안 햇농산물(마늘,자두,복숭아)품목에 한하여 10%할인을 진행하고, 마늘 상위구매고객에게 사은품을 증정하는 등 이벤트를 진행한다.

한편, 의성장날에서는 명품 의성토종마늘과 신선과일(사과), 의성마늘소, 가공품 등 의성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 63여종을 판매하고 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시기, 비대면 온라인 판매를 적극 추진하여 의성농가의 소득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019년과 2020년 2년 연속 국가브랜드 대상, 2019년 소비자선정 최고의 브랜드대상을 동시에 수상한‘의성장날’쇼핑몰은 전년대비 100%이상의 매출신장률을 보였으며,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지역 농특산물을 소비자에게 직거래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의성군 대표 농특산물 쇼핑몰이다.

김세기/기자

울진군 북면사무소 청사 역사 속으로 사라져

7월12일부터 임시청사(구 헬스장)에서 업무 시작

울진군 북면사무소는 기존 청사가 신축공사에 들어감에 따라 오는 12일부터 구 헬스장을 임시청사로 리모델링하여 업무를 시작한다.

이번 북면사무소 신축은 그 동안 누수로 인한 보수와 면적 협소로 인해 잦은 확장으로 새청사 건립에 대한 지역민들의 요구가 계속됨에 따라 민관의 협력과 노력으로 이루어진 결실이다.

북면사무소 청사는 1987년에 신축되어 현재 34년이 지난 노후된 청사로 7월중에 철거하여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울진군은 총사업비 50억원의 예산으로 기존위치인 북면 부구3길 12(부구리 175번지)에 부지면적 3,819㎡로 청사신축공사를 시작하여 2022년 12월말에 준공예정이다.

아울러 임시청사 이전은 예산 절감과 업무 연속성을 보장하면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현 청사 바로 옆으로 이전하여 면사무소를 방문하는 면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였다.

장신중 북면장은“청사 이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꼼꼼한 업무준비로 청사이전에 따른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질 높은 행정·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기현/기자

조규일 진주시장, "소상공인의 든든한 버팀목 되겠다"

47억 원 규모 코로나19 대응 소상공인 맞춤형 추가 지원 대책 발표

조규일 진주시장은 5일 오전 11시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이윤증대, 비용절감, 경쟁력 강화 등 3개 분야, 총 47억원 규모의 코로나19 대응 소상공인 맞춤형 추가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조규일 시장은 코로나 장기화와 방역 조치 연장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다소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 지난 4월 시행한 제5차 지역경제 긴급 지원 대책에 대한 추가적인 대책으로 이번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브리핑에서 조규일 시장은 "지난 2월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지만 사회 전 분야에 걸쳐 대면 활동의 제약이 많고, 그에 따라 대면 서비스가 필수인 소상공인들은 훨씬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지역 소비 진작을 위해 전 시민 1인당 10만 원의 행복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피해가 상당하기에 소상공인들이 활기를 되찾기까지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부 지원 대책을 살펴보면, 진주사랑상품권 확대 발행 등 이윤 증대 지원에 22억 원, 사업소분 주민세 등 지방세 감면과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등 비용 절감 지원에 15억 원, 진주형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해 10억 원을 투입한다.

특히, 모바일 진주사랑상품권을 200억 원 규모로 추가 발행하는 등 기존 250억 원에서 450억 원 규모로 대폭 확대 발행해 전 시민 행복지원금과 함께 지역의 소비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상반기 50% 수준으로 감면한 공유재산 임대료의 감면 기간을 연말까지로 연장하고, 사업소분 주민세를 비롯한 각종 지방세 약 7억 5000만 원의 감면을 추진하여 소상공인의 경영 비용 절감을 도울 예정이다.

한편, 시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10억 원을 투입하여 '진주형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을 확대 추진해 지역 소상공인 500개 업소에 업소당 최대 200만 원의 경영환경 개선 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역 소상공인들이 오래된 간판을 교체하거나 인테리어를 새롭게 하는 등 코로나로 침체된 분위기를 전환하기 위한 환경 개선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지난 5차 경제대책에 대한 후속 조치로 원도심 건축물의 규제 완화를 위한 건축 조례가 개정되어 원도심과 중앙 상권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을 예정이다.

'대지 안의 공지'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축 조례를 개정하여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하며, 이에 따라 원도심에 위치한 노후 건축물의 용도 변경이 용이해져 리모델링과 증축이 활발해지고 침체된 중앙 상권의 활성화와 도시재생 사업의 추진에도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전망이다.

조규일 시장은 "코로나 상황이 언제 완전히 종식될지 예단하기 어렵고, 코로나 바이러스도 변이를 거듭하고 있어 방역이 곧 경제일 수밖에 없는 엄중한 현실이다"라면서 "지난 다섯 차례의 경제 대책과 마찬가지로 이번 소상공인 지원 대책 역시 기본 전제는'방역'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방역수칙 준수 확행을 위해 행정 지도와 점검을 지속해 나갈 것이며, 시민들께서는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와 백신 접종 참여,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비와 경제활동에도 활발히 나서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최광용/기자

김해시, 민선7기 3년간 공영주차장 2441면 확충

2023년까지 12곳에 1118면 추가 조성

김해시는 민선7기 지난 3년간 19곳에 공영주차장 2441면을 확충했다고 밝혔다.

민선7기 첫 해부터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환경 개선사업을 추진 중인 시는 제104회 경남(김해) 전국체전 개최 한 해 전인 2023년까지 12곳에 공영주차장 1118면을 추가 조성한다.

추가 조성 계획을 보면 도심지 주차난 해소를 위해 거북공원 주차타워(116면), 연지공원 공영주차장(191면), 삼방공원 공영주차장(114면), 삼계44통 공영주차장(24면), 진영1지구 공영주차장(51면)을 조성하고 있다.

전통시장과 구도심 권역의 공영주차장 확충을 위해 동상시장 공영주차장(185면), 진영 상생 주차타워(132면), 봉황대길 주차장(48면), 인제공원 공영주차장(80면)을 조성한다.

생활SOC복합화 사업으로 부곡동에 행복순환센터 공영주차장(102면), 삼계동에 복합문화나눔센터(75면)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공영주차장 확충의 물리적, 재정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기존 공영주차장 유료화와 비대면 결제시스템, 주차정보시스템 설치로 주차 순환율을 높여가고 있다.

도심지는 노는 땅이 잘 없고 부지 확보가 어려워 주차장 용지를 매입해 신축하려면 주차면 1면당 5000만 원 이상이 소요된다.

아울러 주택가 화물차 불법주차와 밤샘주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진영 화물자동차휴게소(422면)를 준공해 운영 중이며 다음 달까지 생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80면)를 조성한데 이어 장유 응달동에 300면을 추가 조성한다.

이밖에 학교와 종교시설 부설주차장을 개방하는 공유주차장 활성화사업을 확대해 만성적인 주차난과 주민 갈등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불법주차로 인해 차량 통행에 불편이 많은 지역에 공영주차장을 확충해 차량 통행이 원활해지는 것은 물론 이면도로 보행 안전 개선에도 큰 효과를 거둘 것"이라며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주차환경 개선사업과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남궁영기/기자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사업정책관, 거제 관광두레사업체와 간담회 개최

거제시는 2020년 관광두레 주민사업체로 선정된 섬꽃차에 지난 2일 문화체육관광부 김종훈 관광사업정책관이 방문했다고 밝혔다.

김 정책관은 이곳에서 꽃차 만들기 체험을 하고 현장을 둘러본 후 주민사업체의 의견을 듣는 간담회를 열어 참여한 주민사업체 3개소와 관광두레사업체의 발전방향과 역할 등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관광두레 사업이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13년에 시작하여 지역주민이 직접 숙박, 식음, 여행, 체험 등의 분야에서 지역 고유의 특색을 지닌 관광사업체를 창업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사업으로 매년 공모를 통해 관광두레 지역과 관광두레PD를 선정한다.

거제시 김은주 관광두레PD는 2020년 신규 주민사업체 5개소(거제섬꽃차, 버드앤피쉬체험영농조합, 하청면문화센터, 거제도 해초쑥, 거제시관광기념품협동조합)를 발굴하였고, 사업육성을 위한 컨설팅, 교육, 견학, 홍보마케팅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에 김 정책관이 방문한 섬꽃차는 천연염색과, 다도체험, 꽃차 만들기 체험 등을 하고 있으며 올해 초 방영된 KBS1 김영철의 동네한바퀴에 출연하여 소개되기도 했다.

거제시 관계자는 "관광두레사업을 활용하여 역량 있는 지역 사업체를 발굴하고 지원하여 관광산업이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영훈/기자

함양 농촌 유토피아 대한민국 미래를 열어간다.

우리나라 농촌유토피아 사업을 이끌며 도농 상생의 미래를 열고 있는 함양군에서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미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함양군에 따르면 7월 2일 오후 2시 군청 대회의실에서 함양군 농산어촌지역발전협의회 위원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촌유토피아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콘퍼런스와 명사특강, 특별위원회 및 자문단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을 개최하였다.

앞선 지난 5월28일 발전협의회 발대식에 이어 진행된 이날 행사는 1부와 2부로 나누어 앞으로 싱크탱크 역할을 할 각계 전문가 특별위원회 및 자문단을 위촉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농촌 유토피아 실현 방안을 모색했다.

이 자리에는 서춘수 함양군수, 황태진 군의회의장을 비롯하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문성현 위원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홍상 원장, 전 우크라이나 이양구 대사 등 특별위원과 농산어촌지역발전협의회 위원 등이 참석했다.

1부 행사에서는 함양 농촌유토피아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해 14명의 내·외부 전문가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유토피아 세부사업 외 확대방안과 인적 네트워크 강화 및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어진 2부 행사로 국가균형위 농산어촌유토피아특별위원회 성경륭 위원장의 '농산어촌 유토피아의 비전과 과제'를 주제로 특별강연과 함께 특별위원회 및 자문단에 대한 위촉장 수여행사가 진행되었다.

현재 함양 농촌유토피아 선도사업은 서하초 작은학교 살리기와 연계한 임대주택조성, 청년레지던스 플랫폼 조성을 시작으로 다양한 청년시책 추진, 안의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100호 건설이 확정되어 추진 중에 있으며, 쿠팡물류센터 인근 스마트 물류단지 조성을 통해 신규일자리를 창출하고,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각종 편익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서춘수 함양군수는 "앞서 위촉된 발전협의회 위원들과 더불어 멀리서도 함양군을 위해 콘퍼런스와 특별강연, 위촉식을 위해 찾아주신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며, 특히, 앞으로 특별위원과 자문위원께서는 각자 맡은 현장업무중에서도 함양군을 위해 많은 지원과 발전방향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황태진 군의회의장은 축사를 통해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들의 오랜 경험과 식견을 바탕으로 우리 함양군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지혜와 역량을 모아 달라"라고 밝혔다.

앞으로, 발전협의회는 4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분야별 지역현안 과제 발굴과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특별위원회와 자문단은 발전협의회에서 도출된 과제에 대한 자문과 사업화 방안 구상을 통해 함양 농촌유토피아 선도사업을 성공모델로 이끌어나갈 계획이다.

최광용/기자

폐업한 소상공인 대출의 정상상환과 재기지원을 위한 250억원 규모 '브릿지 보증' 실시

부산시은 만기도례 폐업소상공인의 대출상환 부담을 덜어주고 재기지원을 위해 폐업소상공인의 기업보증을 개인보증으로 전환하는 '브릿지 보증'을 7월 5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브릿지 보증'은 만기도래 폐업사업자의 보증만기 연장을 허용하지 않아 만기도래시 즉시 상환해야 하므로 코로나19로 여유자금이 없는 소상공인의 경우 재기기회를 상실할 수가 있어, 성실납부자에게는 보증을 유지하여 재도약할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부산시는 '브리지보증' 실시를 위해 지난 6월 추경을 통해 시비 40억원과 국비 10억원을 확보하였으며, 부산신용보증재단에 50억원 출연(*5배수 운용)을 통해 250억원 규모의 폐업소상공인들을 위한 보증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부산신용보증재단을 이용한 폐업사업자로 개인신용평점 950점 이하 또는 연간소득 8천만원 이하이며, 기존 사업자 대출잔액의 범위 내에서 부산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보증하고, 보증요율은 1.0%, 보증보증기간은 5년이내이다.(※ 2021. 4월말 기준 부산폐업기업의 보증건수 1,873건, 331억원)

박형준 부산시장은 "제1차 비상경제대책회 개최 결과 지난 5월말에 출시된 「소상공인 3無 정책자금」으로 더 이상 지원을 받기 어려운 지역 소상공인 1만명에게 1,000억원 지원하였으며, 폐업한 소상공인들에게는 이번 '브리지 보증' 지원을 통해 대출금의 정상상환을 도와, 부산지역 사업체의 85.6%를 차지하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촘촘한 정책지원을 통해 서민경제의 근간을 두텁게 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남궁영기/기자

울산시, '2021년 색채디자인 컨설팅 지원사업' 운영

단독·공동주택, 공장 … 접수 신청순으로 지원

울산시는 단독주택, 공동주택(300세대 미만) 및 제조시설(공장)을 대상으로 외부 페인트를 재도색할 경우 '울산시 색채 가이드라인'을 적용한 이미지뿐만 아니라 실질 시공도면까지 지원하는 '2021년 색채디자인 컨설팅 지원 사업'을 운영 중에 있다.

이 사업은 울산의 정체성 형성을 주제로 도시의색을 만들어가고 산업경관을 개선하기 위하여 울산 도시색채 가이드라인의 '울산색 활용 유도'를 위하여 지난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올해부터는 관내 모든 단독주택에 확대 시행되며, 공동주택(300세대 미만)과 공장(기업체)은 도장 시공업체 선정이 완료된 대상에 한하여 지원된다.

지원 대상이 되면, 디자인 담당 공무원이 현장 직접 방문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주변 환경, 브랜드 분석 등을 통해 색채디자인을 연구·개발하여 시공이 가능하도록 설계 도안을 제안한다.

지원받은 공동주택의 경우 디자인(안)의 시뮬레이션을 보고 입주민들과 함께 상의하여 모두가 만족하는 도색을 할 수 있어 입주민들의 호응이 좋으며, 공장(기업체)은 색채디자인 컨설팅 지원을 받아 디자인 비용 절감 뿐만 아니라 환경개선 후 외부 방문객들로부터 색채디자인에 대한 많은 관심과 찬사를 받았다.

울산시 관계자는 "우리가 사는 집과 일터의 환경개선은 그곳에 속하는 사람들만을 위한 것뿐만이 아닌 도시를 오가는 모든 사람에게 시각적으로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하다."면서 "우리시 도시색채가 형성될 수 있도록 일반 시민들에게 색채 디자인 행정 서비스를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현/기자

장흥군, '코로나제로' 수문해수욕장 7월 9일 개장

사전예약제, 안심콜 운영 입장 가능 표식 손목띠 제공 등

장흥군 안양면 수문리에 위치한 수문해수욕장이 내달 7월 9일부터 오는 8월 8일까지 31일간 개장한다.

또한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 대응과 안전 관리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수문 해수욕장은 올해 해양수산부 지정 '가족 단위 한적한 해수욕장'으로 지정됐으며, 전국 최고 품질의 모래가 펼쳐진 모래사장을 갖추고 토요시장 및 우드랜드 등 주변 관광지와 인접하여 해마다 많은 피서객들이 찾는 휴양지이다.

군은 해수욕장 개장 시기에 맞추어 이용객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안전난간 설치 및 산책로 보수와 더불어 몽골텐트, 벤치 등의 편의시설도 보수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군은 개장 기간 동안 현장에서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전예약제(온라인 예약) 및 현장 예약을 통해 일일 방문객 인원을 제한하고, 해수욕장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수기 출입명부 대신 전화를 거는 것으로 출입명부 작성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입장객에 대해서는 손목띠를 부착하게 하고, 다중이용시설 소독을 실시할 방역요원 6명, 물놀이 안전을 위한 수상안전요원 5명이 개장 기간 동안 해수욕장의 안전을 위해 종사한다.

정종순 장흥군수는 "코로나19의 여파로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대형 해수욕장이 아닌 해양수산부에서 가족 단위 한적한 해수욕장으로 지정한 우리 수문 해수욕장을 찾는 피서객들이 증가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장길/기자

목포시, 안심할 수 있는 외달도에서 피서하세요

코로나 차단 위해 대응팀·사전 예약제 운영

목포시가 '슬로시티 섬' 외달도 해수풀장과 해변을 7월 10일 개장해 8월 22일까지 운영한다.

시는 해수풀장 바닥매트 교체를 비롯해 대형 그늘막·해수 공급시설·샤워장 및 해수욕장 편의시설 등을 정비해 외달도를 찾는 관광객이 편하게 피서를 즐길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특히 피서객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코로나19 대응팀(5명)'을 배치해 피서객의 외달도 도착시 발열 체크와 전자출입명부 등록을 실시한 뒤 이상이 없을 경우 안심밴드 착용 후 입장하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또 샤워장, 화장실 등은 매일 2회 이상 방역소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해수욕장 이용객의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 사전 안심예약제(네이버 외달도해수욕장 검색 또는 바다여행), 안심콜, 거리두기 구획제(4m)를 시행한다.

선박 운항 시간은 목포여객선 터미널에서 외달도행은 오전 7시와 10시 30분, 오후 1시30분과 4시30분이고, 외달도에서 목포여객선 터미널행은 오전 7시 55분과 11시25분, 오후 2시25분과 5시25분이다.

목포에서 여객선으로 50분(6km) 정도 떨어진 외달도는 때 묻지 않은 자연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섬으로 다도해 풍광 속에서 호젓하게 휴식할 수 있고 전복, 촌닭 등 보양식도 맛볼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 청정지역인 목포, 그 중에서도 청정해역을 자랑하는 외달도는 피서지로서 제격이다"면서 "방역에 최선을 다 해 코로나로 지친 관광객이 안심하고 피서를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일/기자

전남 난대숲 피톤치드, 소나무숲보다 최대 3.6배

여름철 붉가시나무숲, 발생량 많아 보건휴양 효과 탁월

라남도산림자원연구소는 지난해부터 전남지역 산림의 공기질 조사를 한 결과, 난대숲의 피톤치드 발산량이 소나무숲보다 최대 3.6배나 높은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피톤치드는 숲속 식물이 생존을 위해 박테리아나 해충 등을 퇴치하기 위해 만드는 살균성 물질이다. 인체의 스트레스 완화, 심신안정 등 건강증진 효과가 있다.

전남산림자원연구소는 2018년부터 전남의 주요 난대수종인 붉가시나무, 구실잣밤나무, 동백나무, 황칠나무 군락지와 온대수종과, 피톤치드 양이 많다고 알려진 소나무숲의 피톤치드 발산량을 비교 분석했다.

그 결과 계절별로 난대숲의 평균 피톤치드 발생량이 소나무숲보다 1.1~3.6배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수목 생장이 가장 활발한 여름철이 다른 계절에 비해 확연히 높았다. 수종별 비교에서는 다섯 수종이 비슷한 수치지만 특히 붉가시나무숲이 1천730pptv로 소나무숲 1천659pptv보다 더 높았다.

붉가시나무는 완도수목원 60% 정도의 면적에 자생하는 수종이다. 2013년과 2014년 LULUCF 분야 국가고유계수에 따르면 탄소흡수량이 단연 으뜸인 것으로 조사됐다. LULUCF는 인간의 토지 이용에 따라 변화되는 온실가스의 증감을 의미한다.

특히 난대지역 상록활엽수림이 최근 20년간 약 2.7배 늘어나는 등 기후변화로 난대숲 분포 면적이 확대될 것을 고려하면 향후 붉가시나무 활용 방안에 대한 재조명이 기대된다.

오득실 전남산림자원연구소장은 "코로나로 지친 국민이 올 여름 피톤치드 가득한 난대숲을 찾아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길 바란다"며 "미래 우리나라 산림의 근간이 될 난대숲의 보건휴양적 효과를 지속해서 연구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안/기자

광주광역시의회, 시민의 삶 바꾼 조례 20선 선정

개원 30주년 기념, 지방의회의 역할과 성과 재조명

광주광역시의회는 2021년 지방의회 부활 30년을 맞이하여 그동안 지방의회의 역할을 돌아보고, 향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의회의 역할을 재조명하기 위해 '광주시민의 삶을 바꾼 광주광역시의회 조례 20선'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광주시의회는 광주시민을 위한 주거, 복지, 환경, 교통, 교육 등 분야별로 상임위원회에서 조례를 추천받아 입법정책담당관실검토를 거쳐 언론인 등 의견을 수렴하였고, 교수, 언론인, 시의원 등 총 8명으로 구성된 지방의회 개원 30주년 기념행사 기획자문단에서 조례20선을 최종 선정했다.

조례 20선 선정 기준은 크게 3가지로 ① 전국최초 조례 및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조례 여부 등 '창의성', ② 조례 시행 파급효과 및 주민의 삶 개선 정도 등 '효과성', ③ 주민이나 시민단체의 참여가능성 정도 및 주민의 권리나 이익에 대한 과도한 침해 정도 등 '합법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은둔형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바지한 '은둔형외톨이 지원 조례', 공용차량 중 주말 등에 사회적약자에게 무상대여 할수있는 '공용차량 공유 조례', 노동자들의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한 '생활임금 조례',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고려인 안정적 정착 및 고려인 청소년 건강성장을 지원하는 '고려인주민 지원 조례' 등 광주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조례가 포함됐다.

광주시의회는 오는 7일 지방의회 개원 30주년 비전선포식 행사에 조례 20선을 전시할 예정이고, '광주광역시의회 의정 30년사'에 조례 20선을 포함하여 오는 9월까지 편찰 할 계획이다.

김용집 광주광역시의회 의장은 "조례 20선을 통해 그동안 지방의회 역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며 "앞으로도 새로운 자치분권 시대에 맞는 정책 개발과 실효성 있는 입법 활동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훌륭한 조례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덕윤/기자

담양군, 저지방한우 브랜드 전략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담양군은 지난달 30일 담양식 창조농업의 일환으로 한우농가 소득향상을 위한 '담양 저지방한우 브랜드 전략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저지방한우 브랜드 육성 사업추진단, 순천대 교수, 컨설팅 업체, 관련 공무원 등 12명이 참석했으며 참석자 간 거리 확보, 발열 및 호흡기 증상 점검, 소독 실시 등 충분한 방역 조치를 준수하며 진행했다.

보고회에서는 담양 저지방한우 브랜드 성공을 위해 일반한우와 저지방한우 브랜드육에 대한 소비자 대상 인지도 평가, 참여농가관리방안, 전략 수립에 대해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공유했다.

앞으로 담양 저지방한우 브랜드 사업단은 고부가가치 상품 개발과 마케팅 전략 수립, 저지방한우 종합지원센터 구축 등 브랜드 육성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이철규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저지방한우는 소비자 인지도가 부족하여 새로운 시장 개척에 어려움이 있지만 담양한우가 전국 최고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담양 저지방한우 브랜드 육성 사업은 민선 7기 공약사항으로 건강하고 차별화된 저지방한우 브랜드를 통해 새로운 한우시장 개척과 농가소득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며 사업비 19억 원을 확보, 올해부터 내년까지 추진한다.

오홍곤/기자

정읍시 '비대면 스마트도서관' 중앙도서관으로 옮겨 문 연다!

정읍시가 정읍 시외 버스터미널에서 운영하던 스마트도서관을 정읍시립 중앙도서관으로 이전해 운영한다.

시는 시민들의 지속적인 독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시외 버스터미널 내에 스마트도서관을 운영해 왔다.

그러나 기존 시외 버스터미널 스마트도서관의 이용자층은 터미널 인근 주민이 아닌 교통편을 이용하는 불특정 유동 인구였기 때문에 이용률이 저조했다.

또 스마트도서관 고장 시 도서관과 원거리로 인해 신속 대응의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시는 코로나19 시대에 적합한 비대면 서비스 제공과 스마트도서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스마트도서관을 이전을 결정했다.

시는 스마트도서관 이전을 위해 3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시민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CCTV와 에어컨 등 시설을 갖춘 부스를 제작했다.

또한 신간 도서와 베스트셀러 등 350여 권의 도서를 비치했으며, 주민들이 다양한 도서를 접할 수 있도록 반기별로 도서를 교체할 예정이다.

스마트도서관은 평일, 주말 관계없이 24시간 상시 대출과 반납이 가능하다.

정읍시립도서관 회원증(모바일 회원증 포함)을 가진 시민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도서는 1인당 최대 5권까지 17일간 빌려볼 수 있다.

시는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무인으로 책을 대출하고 반납할 수 있는 도서관 서비스로 감염병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서관 관계자는 "스마트도서관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환경 변화에 대응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비대면 생활밀착형 도서관"이라며 "도서관 운영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일상에서 책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최하은/기자

전통 흙가마에서 구워 낸 고흥 분청사기

고흥군은 지난 1일 500년 전 선조들이 사용하던 전통방식의 분청사기 제작을 위해 분청사기 도예강좌 수강생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통 분청사기 흙가마 요출행사'를 진행하였다.

이번 행사는『사적 제519호 고흥 운대리 분청사기 요지』에 위치한 재현 가마터에서 진행되었으며, 도예강좌 수강생, 전문도예가들이 분청사기의 7가지 기법을 활용하여 제작한 분청사기 400여 점이 소성되어 그 모습을 드러냈다.

이번 행사는 6월 24일부터 30일까지 분청사기 재임, 가마 불지피기, 가마 식히기를 마친 뒤 분청사기 요출이 진행되었다.

요출된 도자기는 대부분 제7기 도예강좌 수강생 제작 작품으로 90%의 성공률을 달성하였으며, 이는 지속적인 전통 흙가마 관리와 2020년 흙가마 소성 행사 당시 불조절 문제로 인하여 일부 분청사기가 실패한 부분을 보완·수정한 결과이다.

이번 소성 행사에서 완성된 제7기 도예강좌 수강생 분청사기는 7월부터 분청문화박물관에서 전시가 진행될 예정이며, 제8기 분청사기 도예강좌는 2021년 7월부터 수강생을 모집하여 8월부터 진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500년 전의 전통 흙가마를 재현해 고흥을 대표하는 덤벙 분청사기의 맥을 이어가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 진행될 제8기 고흥 분청사기 도예강좌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영안/기자

완주군, 신완주 도약 위해 3조원 '자족도시 완주 대전환 프로젝트'가속화

박성일 완주군수가 '수소와 문화로 열어가는 미래 자족도시 신(新)완주 도약'을 위해 3조 원 규모의 '자족도시 완주 대전환 프로젝트'를 가속화해 나가겠다고 밝혀 비상한 관심을 끈다.

박 군수는 2일 오전 군청 브리핑룸에서 '민선 7기 4년차 8대 군정운영 방향'과 관련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안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군정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 군수가 이날 제시된 군정 방향은 대한민국 수소도시 1번지 완주 실현,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응, 전북 4대 도시 성장기반 구축, 국내 대표 문화도시 육성, 농(農)토피아 완주 실현, 전북 대표 관광도시 도약, 3대 친화도시 조성, 주민과의 공약이행 최선 등이다.

박 군수는 우선 국내 수소도시 1번지 완주 실현을 위해 수소특화 국가산단 조성과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 등 연료전지 원 스톱(One Stop) 인증체계를 구축하고, 수소시범도시 등 총 4건에 1,200억 원을 투입하는 수소산업 생태계 기반구축도 활발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 군수는 특히 산단과 주거, 교통 등 각 분야의 기존 투자와 향후 시설 확충, 추가 투자 계획을 묶어 3조원 규모의 '자족도시 완주 대전환 프로젝트'로 명명하고 앞으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자족도시 완주 대전환 프로젝트'는 산단과 명품 주거단지 조성 등 공공부문 50개 사업(2조2,000여억 원)의 적기 추진과 대규모 기업유치를 통한 민간투자(현재 7,800여억 원) 활성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오는 2025년을 전후해 대부분의 사업이 마무리되는 등 이번 프로젝트가 차질 없이 진행되면 '완주인구 10만 시대 도래'가 무난할 것으로 보여, 전주와 익산·군산 등 3시(市)에 이어 완주군이 전북 4대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각종 기반을 확고히 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박 군수는 또 '대한민국 대표 문화도시'로 우뚝 서기 위해 완주형 문화공동체 300여 개를 지원하는 로드맵을 확정하고 공감과 공유, 공동, 공생 등 공동체 문화 생태계 구축을 위한 4대 특성화 전략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농(農)토피아 완주 구현'을 위해 통합적 먹거리체계를 강화하고 로컬푸드 관계시장을 확대 추진하는 한편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보장하며 취약계층 먹거리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는 의지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는 농촌 융복합 산업 육성과 미래 농업자원 확대에 적극 나서는 방안도 포함했다.

박 군수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완주방문의 해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완주관광 1천만 시대'를 견인하고 관광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등 전북 대표 관광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고령 친화와 아동 친화, 사회적경제 친화 등 이른바 '3대 친화도시 조성'을 통해 삶의 질 높은 으뜸도시 완주를 선도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박 군수는 민선 6기 출범 이후 지난 7년 동안 공약이행 평가에서 연속 최우수(SA) 등급을 받은 만큼 1년도 주민과의 약속을 철저히 이행해 8년 연속 기록을 세우고, 폐기물처리시설 조성 공론화위원회 운영 내실화 등 주요 현안 해결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민선 7기 3년차에는 코로나19의 선제적 대응과 수소산업 인프라 확충, 문화도시 선정 등 많은 성과를 거뒀다"며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가 모든 성과를 가능하게 한 만큼 앞으로 남은 1년도 군민과 함께 새로운 성과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군정의 역량을 결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광수/기자

전북교육청, 스카우트 온라인 국제교류

화상회의 성공리에 마쳐

전라북도교육청이 스카우트 온라인 국제교류 화상회의를 개최했다.

도교육청은 5일, "Jambo Friends(잠보 프렌즈)"제1차 온라인 국제교류를 화상 플랫폼 줌(Zoom)을 이용해 성공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국제교류는 4년마다 개최되는 스카우트 잼버리 야영대회가 2023년 우리 지역 새만금에서 개최됨에 따라 스카우트 저변확대를 위해 운영중인 'JB 국가대표'와말레이시아 대원간 연대의식 및 국제교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Jambo"는 월드 스카우트 잼버리에서 쓰이는 용어로 스와힐리어로 "안녕하세요"라는 뜻이다.

국제 스카우트 친구 사귀기 프로젝트인 "Jambo Friends"는 제2기 잼버리 JB 국가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대장 및 대원 중 국제교류 참가를 희망하는 영어 능력 우수 지도자와 대원을 중심으로 선발했다.

국제교류는 7월 1일부터 행사 종료시까지 운영되며, 잼버리 JB국가대표 지도자 3명, 대원 20명과 말레이시아 스카우트 지도자 3명, 대원 20명이 참여하게 된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 교류(이메일, 화상플랫폼 등)를 원칙으로 운영된다.

이번 교류의 주요 내용은 ▲양국 리더 및 지도자 소개 ▲Jambo Friends(잠보 프렌즈) 목표 설명 ▲양국간 부대소개 ▲상호 인사 등이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잼버리를 통한 세계 청소년과의 교류 확대로 읽고 쓰는 능력 향상은 물론 세계 생활방식을 배우고 우정을 확립해 세계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며 "다양한 글로벌 소양교육 실현을 통한 잼버리 붐-UP 조성 및 저변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송일/기자

고창군 반룡마을, 생생마을 만들기 콘테스트 경관·환경 분야 우수상 수상

고창군은 전북도에서 추진하는 '제8회 생생마을 만들기 콘테스트'에서 신림면 반룡마을이 '마을만들기 경관·환경 분야'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5일 밝혔다.

반룡마을은 지난 6월 전문가 현장평가를 통해 도내 6개 마을이 참여한 '경관·환경 분야'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신림면 반룡마을은 마을의 자원을 활용해 주민들이 돌탑과 돌담을 쌓아 옛 정취가 느껴지는 돌탑마을을 만들었다.

지난 2011년부터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돌담쌓기, 예술인 거리조성, 마을쉼터 조성 등을 추진했고, 2019년부터는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을 통해 돌탑 마실길 조성, 생태하천 정비, 반룡 돌탑길 정비 등을 진행했다.

강성원 반룡마을 이장은 "이번 콘테스트 수상을 통해 주민주도의 공동체 활동과 마을가꾸기의 중요성을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다"며 "생생마을 만들기를 통해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고, 활력이 넘치는 농촌마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다양한 마을공동체 사업을 통해 살고 싶은 마을, 잘사는 농촌마을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공동체 프로그램을 추진해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생생마을 만들기 콘테스트는 전북도가 주민의 자율적인 마을개발 우수사례를 발굴해 시상함으로써 주민의 자율·창의력·협동심을 고취하고 마을의 소득·문화·경관 개선을 유도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목적을 두고 매년 개최하고 있다.

김현태/기자

진안군, 지속가능한 농업 위한생분해성 멀칭비닐 지원 추진

진안군은 농촌환경오염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농업용 폐비닐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 중 하나인 '생분해성 멀칭비닐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일반 멀칭비닐은 농업인구의 고령화, 농촌일손부족 등으로 수거 및 처리에 많은 비용이 발생한다.

반면, 농업용 생분해성 멀칭비닐은 햇빛을 받으면서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자연적으로 분해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에 전 작물 재배후 후 작물 재배를 위해 폐비닐을 수거할 필요가 없어 봄·가을 농번기에 농작업 시간 및 노동력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농작업의 편리성과 농촌의 환경보전을 도모하는 우수성에도 불구하고 일반 멀칭비닐보다 비싼 가격으로 농가에서 사용이 쉽지 않은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진안군은 전북도와 함께 밭작물, 원예작물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총사 업비 47백만원을 투입해 상반기에만 고구마, 감자, 옥수수, 고추, 엽채류 재배면적 36ha에 생분해성 멀칭비닐 지원을 완료했다.

더불어 올해 하반기에는 잔여 예산 10백만원을 활용해 가을배추, 무 등 재배농가에 멀칭 비닐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읍·면사무소 산업팀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안용남 농업정책과장은 "생분해성 멀칭비닐이 농촌환경 보전 및 인건비 절감으로 농업인력 고령화에 대해 대책으로서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보다 좋은 농업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종철.이희철/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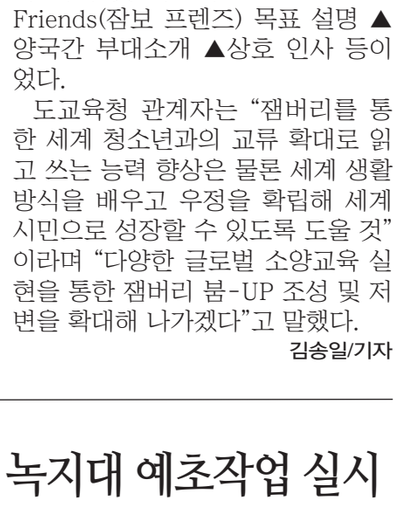
남원시, 중앙분리대 등 녹지대 예초작업 실시

남원시 산림녹지과는 여름철을 맞아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중앙분리대, 도로변 녹지대 등 예초·제초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대상지는 중앙 분리대 및 교통섬 등 녹지대(요천로 등 7개소, 50,700㎡), 시가지 가로화단 및 꽃단지(춘향로 등 8개소, 41,440㎡)이며, 구역내 예초·제초 작업을 실시하여 통행차량 및 보행자들의 불편 해소, 수목 생육환경 개선에 힘쓰고 있다.

정비작업은 화단·녹지대 별로 연중 3~5회 실시 계획으로, 6월 중 2차 작업을 완료하였고, 기상 여건과 수목 상태에 따라 이달 말까지 제초와 풀베기 작업을 집중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다가오는 여름철 태풍과 가뭄 등 기상재해에 대비해 수목 관수와 지주목 정비를 적기에 시행하고, 고사목 제거 등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연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앞으로도 잡초·덩굴류 제거 등 가로수·화단 관리를 지속하여 더욱 건강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남출/기자

'안전하고 편안하게!', 태안군 만리포 등 28개 해수욕장 3일 일제 개장

태안군이 지난 3일 만리포 해수욕장을 비롯한 28개 해수욕장을 일제히 개장하며 한여름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군은 만리포해수욕장 중앙무대에서 가세로 태안군수를 비롯해 군의회 신경철 의장, 지역주민, 관광객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만리포 해수욕장 개장식을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만리포관광협회가 주관한 이날 개장식에서는 해수욕장 발전 유공자 표창과 내빈 환영사, 격려사 등이 진행됐으며, 초청가수들의 축하공연도 펼쳐져 피서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만리포 해수욕장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만리포전망대도 이날 개관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

해수욕장 입구에 위치한 만리포전망대는 높이 37.5m의 2층 규모 전망대로 지난 2017년 5월 착공해 최근 마무리 작업을 마쳤으며, 탁 트인 만리포 해변을 한 눈에 내려다볼 수 있어 관광객들의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이 전망대는 외부를 밝히는 경관조명을 설치해 계절에 따라 다양한 시각 효과를 구현하고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휴식공간을 제공해 만리포해수욕장의 명물로 큰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군은 코로나19 전파 방지를 위해 만리포와 꽃지, 몽산포 등 주요 해수욕장 입구에 발열체크소를 설치하고 여름출장소 근무를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 제로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개장 첫날인 3일, 만리포 해수욕장을 방문해 근무요원들을 격려한 가세로 군수는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해수욕장 운영을 위해 유관기관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환황해권 대표 휴양지 태안을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만리포 해수욕장은 8월 29일까지 운영되며, 그밖의 해수욕장은 8월 15일까지 문을 연다.

최재은/기자

증평군 민선 5기 3년, 살기 좋은 자족도시 기틀 마련

증평군이 이달 3년을 맞이한 민선 5기 군정성과를 발표했다.

증평군 민선5기는 경제, 안전, 문화, 관광,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괄목할만 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군은 대규모 민간투자 사업을 통해 지역경제 성장의 기반을 구축했다.

오랜 공을 들였던 도내 최초 관광단지 에듀팜특구 관광단지는 골프장, 수상레저, 양떼목장, 숙박시설 등이 개장해 코로나19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5월 기준 누적 방문객 수가 64만 명을 돌파하며 성공적으로 안착했다.

지난해 총사업비를 지난해 1,594억 원에서 2,679억 원으로 1,085억 원을 늘렸으며, 특구면적도 303만 5203㎡에서 306만 6820㎡로 늘릴 계획이다.

모든 시설이 들어서면 생산유발 3332억원, 소득유발 857억원, 고용유발 2778명 등의 경제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제2일반산업단지 분양 완료한 경험을 살려 증평초중일반산업단지 조성도 추진한다.

민간개발 방식으로 증평읍 초중리 일원 68만㎡ 부지에 1,324억 원을 투자해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기능성 바이오소재 기업을 유치해 한국교통대 증평캠퍼스 4D 바이오융합소재 산업화센터와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도안면 광덕리 일원에는 176억원 규모의 도안2농공단지가 지난해 12월 농공단지계획 승인을 완료하고 올해 하반기에 착공한다.

군은 안전도시의 위상을 더욱 강화했다.

지난해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에 선정돼 대통령상을 수상하고, 행정안전부에서 평가한 지역안전 지수에서 화재·생활안전·자살·감염병 등 4개 분야 1등급을 기록해 충북도 내에서 가장 좋은 성적표를 받았다.

전국최초의 택시경찰대 운영, 조기경보 시스템 마련, 재난대응 체계 구축, 소하천 정비, 영상관제센터 운영 등에 힘써온 결과다.

사업비 100억원(국도비 65억원)을 확보한 질벌뜰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내년 착공, 올해 말 보강천 인도교 준공 등 안전도시 명성을 이어갈 계획이다.

군은 보육과 건강, 교통, 문화, 복지 등 일상생활에서 주민 편익을 높여주는 생활 SOC도 집중적으로 늘리고 있다.

300억원이 투입되는 증평종합운동장 건립은 지난해 착공했으며, 산림청의 대표적 생활 SOC사업으로 도심의 미세먼지 저감과 녹지 공간 확충을 위해 국비 100억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200억원을 투자하는 도시바람길 숲 조성사업은 설계 중에 있다.

2019년 12월 문을 연 김득신 문학관과 지난해 신축한 군청별관에 들어선 증평군 기록관은 증평군립도서관과 함께 주민들의 문화충전소 역할을 한다.

창동리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도심 내 흉물로 방치됐던 개나리 아파트를 올해 초 철거를 마쳐 그 자리에 도서관, 아이돌봄센터 등을 갖춘 공동주택을 짓고 있다.

보훈회관을 준공해 지난달 7개의 보훈단체가 이전했으며,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건립을 위한 특별교부세도 확보했다.

아동 돌봄센터가 들어설 증평군 가족센터 신축,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증평초 다목적 체육관 건립, 원도심 내 주차타워 조성, 장동리 일대 창의파크 건립 등도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군은 중부권 대표 휴양도시로서 높은 경쟁력을 입증했다.

좌구산 휴양랜드는 명상의 집, 명상구름다리, 하강레포츠 시설, MTB 코스 등을 갖춰 해마다 5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고 있다.

지난해 산림지형을 되살리는 생태축 복원 사업과 산새길 조성을 마쳤으며, 별천지 공원에 숲 인성학교과 숲하늘 둘레길 조성도 차질없이 진행 중이다.

좌구산 분젓치 산새길은 2020 가을 비대면 관광지 100선에, 삼기저수지 등잔길은 2021년 봄 시즌 비대면 안심 관광지 25선에 , 좌구산 휴양림은 2021년 웰니스 관광지에 선정되는 등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의 추천 관광지에 잇달아 뽑혔다.

보강천 미루나무 숲 가꾸기, 증평자전거공원 시설확충에도 힘써 청주, 괴산, 진천 등 인근 지역 주민들도 찾는 핫 플레이스가 됐다.

이밖에도 군은 군계획 도로와 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증평경찰서 신설을 위한 행정지원, 송산지구 내 초등학교 신설 추진 등 주요 현안 사업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홍성열 군수는"코로나 19 확산 등으로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중부고속도로 서청주~증평 구간 확장 사업 타당성 재조사 통과, 송산·미암지구의 아파트 단지 건설 활성화 등 대내외적으로 긍정적인 요소도 있다"며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살기 좋은 증평을 만들고 군민행복을 실현하는 자족도시의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제천시, 코로나19예방 7월 접종계획 발표

위탁의료기관 대상 코로나19백신 안전접종 교육 시행

제천시 코로나19예방접종 시행추진단은 7월 중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 및 교사, 50대 등 25,000명에 대한 코로나19예방접종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제천시는 지난 7월 2일까지 총 47,820명에 대한 1차 접종을 마치고, 15,222명에 대해 코로나19예방접종을 완료했다.

7월 주요 접종대상은 5~6월 예약자 중 미접종자 363명과 고3 및 수험생 및 교직원 등 1,343명, 50~59세 24,010명이다.

최우선 접종은 5~6월 예약은 했지만 백신접종을 하지 못한 60-74세 고령층과 30세 미만 사회필수인력으로 7월 5일부터 예방접종센터에서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다.

60-74세 사전 예약자 중 건강상의 이유 등 취소·연기한 사람은 12일~17일까지 사전예약 후 26~31일까지 위탁의료기관에서 모더나 백신을 접종한다.

11월 수능시험을 앞둔 고등학교 3학년과 교직원은 일정을 고려해 19일부터 예방접종센터에서 화이자 백신 접종을 시작한다. 접종일정은 지역 교육청과 접종센터(보건소)에서 일정을 조율하여 진행할 예정이며, 어린이집·유치원 및 초중교 교사는 14일에서 17일까지 사전예약을 하고 28일부터 위탁의료기관에서 화이자 백신을 접종 예정이다.

기타 대입수험생은 7월말 예약을 통해 8월 중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할 수 있다.

7~9월 예정인 입영 장병은 접종센터에서 7월 12일부터 화이자 백신 접종을 시작하며, 사전예약을 위해서는 입영통지서 등 증빙서류 제출을 필요로 한다.

50대 접종자별 일정은, 55~59세는 12일~17일까지 사전예약을 하고 26일부터 8월 7일까지, 50~54세는 19~24일까지 사전예약을 하고 8월 9~21일까지 모더나 백신을 접종한다.

40대 이하(18~49세)는 8월 중 사전예약을 시작하고 예약일정에 따라 9월까지 순차적으로 접종한다.

하반기 AZ백신 2차 접종대상자 중 50세 미만은 7월 5일부터 위탁의료기관 및 예방접종센터에서 화이자백신을 교차접종한다.

위 인원은 질병청에서 지난 7.1~3일간 AZ백신 접종 수요조사를 거쳐 확정된 대상으로, 백신 수급상황 및 연령제한 등으로 동일백신 접종이 곤란한 예외적 상황에서 예방접종전문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교차접종을 진행한다.

한편, 시는 3분기 다종 백신을 운영하게 되는 위탁의료기관의 운영 전 오접종 관리를 위하여 제천시에서는 위탁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6월 29, 30일 2일 간 예방접종센터 현장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또한 오접종 방지 스티커 제작, 백신개봉 및 관리에 사용할 라벨지 배포 등 백신별 접종대상자를 구분하여 접종할 수 있도록 하고, 동영상 교육자료 배포를 통한 백신 안전보관 및 오접종 방지 관련 교육도 이수토록 했다.

아울러 집단면역 형성을 목표로, 9월말까지 제천시민의 70%인 93,112명에 대한 1차 접종을 완료할 계획이다.

최만식/기자

둔산소방서, 의용소방대 신속지원팀(VRS Team) 가동

둔산소방서(서장 박정수)는 여름철 폭우와 장마로 인한 침수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의용소방대 신속지원팀(VRS Team)을 가동한다고 5일 밝혔다.

둔산소방서 의용소방대 신속지원팀은 5일 발대식을 갖고 오는 10월 말까지 본격 운영되며, 향후 운영효과에 따라 산불 등 다양한 재난 활동에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여름철은 기후 특성상 장마와 태풍, 기습호우에 따른 상습침수로 피해복구에 많은 소방인력과 시간이 소요된다.

특히 지난해 여름 태풍과 집중호우로 우리지역에도 많은 침수피해가 발생됨에 따라 이 같은 피해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신속한 출동과 복구가 가능한 의용소방대 신속지원팀을 꾸리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방침이다.

3인 1개조, 총 9개조 27명으로 구성된 의용소방대 신속지원팀은 호우 및 태풍 등 기상특보에 따라 사전단계와 3단계의 대응단계별 운영기준을 세우고 즉각적인 출동체계를 마련했다.

또한 상황발생시 즉각적인 대처를 위해 동력소방펌프와 수중펌프 등 풍수해 대응장비를 개인차량에 항시 갖추고 만일의 재난상황에 대비한다.

둔산소방서 관계자는 "다양한 재난현장에 소방공무원 뿐만 아니라 의용소방대원들이 많은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며, "의소대 신속지원팀을 통해 풍수해 발생 시 부족한 소방인력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변운석 의용소방대 신속지원팀장은 "우리 지역 안전을 위한 일에 함께 할 수 있어 기쁘다"며,"항상 준비된 마음과 철저한 준비로 이전과 같은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정화/기자

강원국제트리엔날레2021 홍천사무소 개소식

7월 2일 홍천미술관 신관 1층 강원국제트리엔날레2021 홍천사무소 개소식 개최

(재)강원문화재단 강원국제예술제 운영실과 홍천군은 7월 2일 홍천미술관 신관 사무실에서 강원국제트리엔날레2021 홍천사무소 개소식을 열었다.

개소식에는 허필홍 홍천군수를 비롯해 김필국 강원문화재단 대표이사, 허문원 홍천문화재단 본부장, 이광재 홍천문화재단 이사장, 신지희 강원국제예술제 운영실장, 정혜례나 홍천미술협회장, 김성호 강원국제트리엔날레2021 예술감독 등이 참석했다.

전시에 현장성을 실시간 담아내고 주관사들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문을 연 사무소에는 강원국제트리엔날레2021 예술감독과 큐레이터, 코디네이터 등이 상주하며 행사 준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이날 개소식에서 김성호 예술감독은 강원국제트리엔날레2021 전시 기획 목표와 탄약정비공장, 와동분교, 홍천미술관, 홍천중앙시장 등 장소별 특화된 전시 공간 연출과 참여작가 소개 등 행사 계획을 발표했다.

김성호 예술감독은 "포스트 팬데믹 시대의 회복을 바라는 '따스한 재생'이라는 주제를 통해 한 편의 이야기가 있는 트리엔날레를 구축하겠다."라며 "국제행사인 만큼 아프리카, 남미 등 국내외 유명 작가를 초청하고 강원의 신진 큐레이터와 작가와의 협업도 균형 있게 진행해 관객들이 다양한 관점으로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만들 예정"이라고 말했다.

허필홍 홍천군수는 "홍천에서 2년 동안 진행된 트리엔날레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었고 문화예술도시 홍천으로 거듭나는 가능성을 발견했다."라며 "강원트리엔날레2021을 통해 한 단계 도약하고 더욱 경쟁력 있는 시각예술축제로 발전해나가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원국제예술제는 강원도 전역의 예술공원화를 목표로 하는 국내 최초 3년 주기 순회형 시각예술행사로 첫 개최지 홍천에서 2019년'강원작가전', 지난해 '강원키즈트리엔날레'에 이어 올해는 '강원국제트리엔날레2021'을 9월 개최 예정이다.

이등원/기자

속초시, 청초호유원지 시계탑 조형물 설치

창의적 디자인의 시계탑 설치로 새로운 관광 명소 기대

속초시가 시민과 관광객이 많이 찾는 청초호유원지에 시계탑 조형물을 설치한다.

금번 청초호유원지 시계탑 조형물 설치는 95백만원의 예산을 들여 청초호 유원지 중앙광장 내에 설치되며,

기성품 시계모형이 아닌 창의적 디자인 설계를 접목한 전국유일의 시계탑으로 청초호유원지, 다목적 잔디광장을 이용하는 시민 및 관광객들에게 관광명소를 제공할 것이다.

또한 심미적으로 아름다운 시계탑 조성은 청초호를 사랑하는 속초시민 분들과 속초를 방문하는 많은 관광객들로부터 색다른 약속의 장소, 관광 명소, 포토존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예상된다.

속초시는 이번 공사 착수 전 「청룡·황룡 조형물 및 조명보수 공사」, 「청초호유원지 중앙광장 정비사업」를 유기적으로 연계 시행하여 사업효과를 극대화하여 추진하였으며,

이번 사업효과를 계기로 청초호유원지 내 시설물들에 대한 지속적인 예산을 확보하여 전국 제일의 공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이선규 시 공원녹지과장은"청초호, 다목적 잔디광장, 설악산을 배경으로 한 시계탑 조형물이 감각적 디자인으로 조성되어 속초시의 녹지문화 창조에 최선을 다 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최재은/기자

최대호 안양시장, 제9회 대한민국 미래경영대상 수상. 5일 전수식

청년이 행복한 도시 ▷코로나19 방역·백신접종

최대호 안양시장이 제9회 대한민국 미래경영대상 지방자치 부문 대상을 수상, 이에 따른 전수식이 5일 시청접견실에서 있었다.

대한민국 미래경영대상은 사회 각 분야에서 뛰어난 경쟁력으로 대한민국 미래발전에 기여한 기관, 인물, 브랜드 등을 발굴해 수여하는 상이다.

안양시는 2021 대한민국 미래경영대상 공모에서 민선7기 안양시정이 역점을 둔 청년정책을 포함한 각 분야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3년 동안 청년정책을 중심으로 시정 각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냈다. 특히 청년분야 많은 노력을 기울여, 청년창업펀드 921억원 조성과 함께 청년창업 백개 기업육성에 본격적인 서막을 올렸다.

청년고용 확대를 위해'중소기업 인턴사원제'와'안양형 청년인자리두드림'사업을 추진하는가 하면, 청년가구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청년인터레스트'와 1인 청년가구 대상'청년월세지원사업'그리고 광범위한 주거환경개선을 통한 청년임대주택 공급 추진 등으로 주거안정을 꾀하고 있다.

전국최초 청년상조례 제정을 비롯한 청년정책위원와 청년정책서포터즈 출범, 청년소통Day 운영은 청년층 사기진작에 이바지했다. 안양형 뉴딜로 3만명 넘는 일자리를 창출했는데 청년뉴딜분야에 가장 많은 9천2백여명이 차지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한 전략도 빛났다. 경기도내 첫 임시선별검사소를 설치해 운영하는 가운데 한 템포 빠른 백신접종은 한때 전국 최고의 접종률을 보이기도 했다. 소상공인들을 위한 행복자금 지원, 상수도 요금 감면, 각종 세제혜택 등을 비롯한 다양한 지원책도 시민들의 호응을 얻었다. 국도비 공모에 선정돼 총 439억원을 확보해 시 재정에 보탬이 됐다.

또 최근에는 온 시민의 열망이었던 종합장사시설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개원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인 GTX-C노선 인덕원정차 유치로 큰 기쁨을 선사하기에 충분했다. 시의

이와 같은 성과는 최근 2021 코로나 위기관리 대상 수상과 시정운영 여론조사에서 90.8%가 긍정평가 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최대호 시장은 안양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시 공직자들의 노고가 만들어낸 쾌거라며 수상소감을 전하고, 오로지 시민행복 만을 바라보며 그간 달려온 걸음을 멈추지 않겠다고 강한 포부를 드러냈다.

한편 미래경영대상 본 시상식은 지난 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려, 송재환 부시장이 다녀왔다.

원종균/기자

고흥군, 제1회 '마리안느 · 마가렛 봉사대상' 수상자 선정

고흥군은 지난 6월 30일 제1회 「마리안느·마가렛 봉사대상」 수상자로 간호부문에 강선화 재외한인간호사회 총회장과 봉사부문에 박희성 前 서석고 교장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1회를 맞는 「마리안느·마가렛 봉사대상」은 고흥 소록도에서 한센인을 위해 43년 이상 봉사한 마리안느·마가렛의 숭고한 봉사정신을 계승한 자원봉사자를 발굴하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 확산에 기여하고자 제정하였으며, 간호부문과 봉사부문으로 나누어 각 부문별 1인을 선정, 상장과 함께 시상금 1천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간호부문 수상자로 선정된 강선화 재외한인간호사회 총회장은 2012년부터 미국 아리조나 한인간호사협회장을 맡으며, 한인대상 독감 백신접종 이벤트 추진 및 미국 내 소수민족 의료지원 자원봉사 활동을 활발히 추진해오고 있다.

봉사부문 박희성 前 서석고 교장은 광주광역시 서석고에서 38년간 교직에 재직하며 학생 봉사단과 학부모지도봉사단을 설립해 22년 동안 봉사활동을 추진하였고, 헌혈증 기증운동(19년), 소록도 봉사체험의 날 운영(20년), 필리핀 해외 봉사(4년) 등 자원봉사 활동 활성화에 적극 기여한 공로를 높이 평가했다.

이날 심사에 참여한 고흥군 정하용 부군수는 "우리군은 마리안느와 마가렛 두 분의 봉사정신을 드높이기 위해 '마리안느-마가렛 노벨평화상 추천 범국민추천위원회'와 함께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두 분을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하였고, '(사)마리안느와 마가렛'과 함께 나눔연수원 운영 등 각종 선양사업을 추진해 오던 중 올해 처음으로 봉사대상을 만들어 많은 사람들이 두 분의 숭고한 정신을 알게 되었으리라 생각된다" 며 "앞으로도 마리안느·마가렛 두 분의 봉사정신이 널리 알려지고 많은 이들이 그 정신을 이어가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고흥군에서는 두 분의 평생에 걸친 봉사정신에 걸 맞는 수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2020년 12월 조례개정을 시작으로 2021년 3월부터 45일간 전국 지자체와 자원봉사센터, 공공 의료기관을 통해 후보자를 모집했다.

또한, 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추기 위해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 대한간호협회, 지역대학교 등에서 심사위원을 추천받고, (사)마리안느와마가렛, 군의원, 언론인 등으로 '마리안느·마가렛 선양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두 차례에 걸쳐 심사를 진행했다.

제1회 마리안느·마가렛 봉사대상 수상자에 대한 시상식은 마리안느와 마가렛 두 분의 노벨평화상 수상의 염원을 담아 오는 9월에 개최할 예정이다.

김영안/기자

시흥시 신현동 자원봉사지원단, 발대식 개최

신현동행정복지센터는 7월 1일 '신현동 자원봉사지원단'발대식을 7월 1일 주민자치센터 강당에서 진행했다.

이번 발대식은 관내 12개 단체, 5개 자원봉사동아리가 연대하고 협력하며 자원봉사 활동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4월 중순부터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예방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백신접종센터에서 발열체크, 동선 안내 등을 수행하는 자원봉사자 역할의 중요성이 제기됐다.

신현동 자원봉사지원단은 자연재난, 코로나19 같은 비상 시 재난에 대처하는 자원봉사 컨트롤 타워로서, 관내 단체와 자원봉사자가 함께 비상연락을 통해 능동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평상시에는 관내 단체와 자원봉사동아리의 연대와 협력, 자원봉사 프로그램 기획, 자원봉사자 모집과 발굴 등을 통해 신현동 자원봉사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오승석 신현동 자원봉사지원단 회장은"각 단체와 자원봉사동아리들이 그동안 묵묵히 실천해 온 봉사 활동을 공유하고 협동함으로써 코로나19 등 국가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신현동 특성에 맞는 자원봉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정부/기자

서초구, '양재천 천천투어'환경대상 수상 쾌거!

서울 서초구가 7월 2일 서울 중구 조선일보 미술관에서 열린 '제29회 조선일보 환경대상'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환경대상'은 환경부와 조선일보사가 기후변화방지,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해 노력한 개인과 공공·민간단체를 발굴 격려하기 위해 1993년 공동 제정한 상으로 올해 29회째를 맞이했다.

서초구는 '하천에서 천천히 즐기는 투어'라는 의미인 환경교육 프로그램 '양재천 천천투어'를 성공적으로 운영한 것에서 특히 좋은 평가를 받았다. 그 밖에도, 도심 그늘막 '서리풀 원두막', 일회용 컵 수거함 '서리풀 컵', 실내 공기 질 개선 인증사업 '그린서초 프로젝트'등 전국으로 확산된 다양한 환경정책도 인정받았다.

양재천 천천투어는 전기셔틀카를 타고 양재천을 따라 이동하며 전문 강사 진행 하에 양재천에서 서식하는 각종 동·식물에 대해 배우고, 오리·잉어 모이주기, 꽃 심기, 수질정화시설 견학, 미꾸라지 방류, EM 흙공 만들어 던지기 등 다양한 체험 위주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도심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뗏목체험은 '양재천 천천투어'에서만 경험 할 수 있는 특별체험으로 참여자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았다. 현재 코로나19로 운영이 중단되었지만 2020년 10월 제작한 언택트 프로그램은 유튜브 조회수가 17만을 넘을 만큼 큰 관심을 받았다.

한편, 양재천 천천투어는 환경부 우수환경교육프로그램 지정(2019년), 제16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 우수상 수상(2020년) 등 대외적으로 프로그램의 친환경성, 우수성, 안전성을 검증 받은 바 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기후 위기 시대에 환경과 지구를 살리는 길은 크고 거창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미래세대와 함께 2050 탄소중립 넷제로(Net-Zero)를 향해 '천천히, 꾸준히'노를 저어 나가겠다"고 했다.

정동희/기자

[맥콜-모나파크 오픈 with SBS Golf FR] '연장 혈투' 김해림, 3년 2개월 만에 KLPGA 투어 우승

김해림 선수가 3년 2개월 만에 한국여자프로골프, KLPGA 투어 우승을 차지했다.

김해림은 강원도 평창군 버치힐 컨트리클럽(파72·6천434야드)에서 열린 맥콜·모나파크오픈 최종일 3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버디만 5개를 기록하며 5언더파 67타를 쳤다.

합계 13언더파를 기록한 김해림은 최종라운드에 무려 8타를 줄이며 맹추격한 이가영과 동타를 이뤄 연장전에 돌입했다.

바로 앞 조의 이가영이 18번 홀(파5) 3m 버디로 13언더파, 1타 차 단독 선두로 먼저 경기를 마쳤고, 챔피언 조에서 경기한 김해림은 18번 홀에서 그보다 조금 짧은 거리의 버디 퍼트를 넣고 승부를 연장으로 끌고 갔다.

18번 홀에서 진행된 연장에서 이가영은 7m 안쪽의 버디 퍼트가 홀 바로 오른쪽을 살짝 스치고 지나가 아쉬움을 삼켰다.

이어 김해림은 1.2m 버디 퍼트를 침착하게 성공해 우승 상금 1억4천400만원의 주인공이 됐다.

김해림은 2018년 5월 교촌 허니레이디스오픈 이후 3년 2개월 만에 투어 통산 7승을 달성했다.

김해림은 비거리를 늘리기 위해 달걀을 매일 한 판씩 먹었고, 또 달걀과 관련이 있는 치킨 회사가 타이틀 스폰서를 맡은 교촌 허니 레이디스 오픈에서 2016년부터 3년 연속 우승하며 '달걀 골퍼'라는 애칭이 붙었다.

이후 2019년 일본 진출과 어깨 부상으로 긴 슬럼프를 겪었던 김해림은 이번 대회 1라운드에서 캐디 없이 직접 카트를 밀며 경기하면서도 단독 선두에 올라 화제가 됐고 끝까지 선두를 지켜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까지 차지했다.

전순희/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권영희 의원, 대한민국문화공헌대상 수상!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권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6월 30일 용산구 백범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열린 '대한민국경제문화공헌대상'에서 12일 '광역의회 경제문화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이날 제4회를 맞이한 대한민국경제문화공헌대상은 시사연합신문사와 대상조직위가 주최·주관하고 국민나눔문화공동체가 후원하여 한 해 동안 국가와 지역사회의 경제계, 문화, 연예, 예술, 스포츠계 등 각 분야의 발전을 위해 기여한 단체, 기업, 개인을 발굴해 노고를 치하하고 자신의 분야에서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취지로 수여된다.

권영희 의원은 지난 3년간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으로서 지역 소상공인 지원 활동과 전통시장 살리기, 서울시 창업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의정 활동을 전개했다.

특히, 코로나19로 힘든 실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고용을 촉진하고 채용과정을 지원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와, 서울시 영세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제정을 주도하는 등 침체된 지역경제와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에 앞장서 왔다.

또한, '서울시 뉴딜일자리 사업', '서울시 기술교육원', '서울산업진흥원' 등 일자리 정책과 창업 활성화 정책을 수행하고 있는 현장에 방문하여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경제·노동 현안사안에 대한 간담회 및 토론회에 참여해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들을 제시해왔다.

권 의원은 이러한 활동을 통해 서울시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광역의회 부문의 경제문화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수상 소감을 통해 권영희 의원은 "서울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시의원의 책무"라며, "어렵고 힘든 시기 시민을 위해 더욱 헌신하고 노력하라는 뜻으로 알고 앞으로도 지역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관광거점도시 전주서 '조선팝 페스티벌'

관광거점도시 전주에서 전통 가락에 대중음악을 접목한 '조선팝' 축제가 열린다.

전주시는 다음 달 6일부터 8일까지 덕진공원 일원에서 '한여름 밤의 조선팝'을 주제로 '2021 전주 조선팝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올해 첫 선을 보이는 '전주 조선팝 페스티벌'은 조선팝을 글로벌 공연 콘텐츠로 육성하자는 취지로 기획됐다. 여름인 8월과 가을인 10월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시는 이번 조선팝 페스티벌을 코로나19로 공연 무대가 줄어든 신예 뮤지션들이 실력을 맘껏 뽐낼 수 있는 무대를 제공하고, 코로나블루로 힘들어하는 시민들을 위로할 공연으로 꾸민다는 구상이다.

다만 현재진행형인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영상 콘텐츠를 별도로 제작한 뒤 조선팝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해 많은 시민들이 즐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시는 오는 25일까지 조선팝 페스티벌에 참가할 신예 뮤지션을 모집한다.

지원 자격은 30분 내·외 단독 공연이 가능한 개인 또는 단체(성별, 나이, 학력, 지역제한 없음)다. 모집 분야는 전통음악에 기반한 노래, 연주, 퍼포먼스 등으로, 재창작, 순수창작, 장르 간 협업 등 다양한 형태가 가능하다.

시는 1차 서류심사를 통해 40팀을 선발한 뒤 비대면 실연심사를 통해 최종 20팀을 선발할 예정이다.

이런 과정을 거쳐 두 차례 진행되는 조선팝 페스티벌에 각 10팀씩 공연을 펼치게 되며, 선정된 팀에게는 200만 원의 창작지원금이 지급된다. 또 인기투표 등을 거쳐 선정되는 우수 팀 2개 팀에는 추후 전주시 초청 공연 등 추가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된다.

참가를 원하는 조선팝 뮤지션은 2021 전주 조선팝 페스티벌 홈페이지에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디에스지엔터프라이즈(주)로 문의하면 된다.

향후 시는 조선팝 페스티벌뿐만 아니라 조선팝을 홍보할 수 있는 공연콘텐츠를 제작하는 등 조선팝의 도시로 차근차근 나아간다는 방침이다.

전주시 관광거점도시추진단 관계자는 "식을 줄 모르는 열정을 지닌 신예 조선팝 뮤지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며 "조선팝의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조선팝을 글로벌 공연 콘텐츠로 육성하는 데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송일/기자

사천시민과 전문배우가 함께 만드는 '고려현종 연극교실'

사천문화재단이 오는 7월 21일까지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인 '연극, 우리를 잇:다'에 참여할 시민 배우를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와 사천문화재단이 주관하는 이번 교육프로그램은 사천에 고향을 둔 현종대왕과 연극에 대해 열정과 관심이 많은 사천시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희망하는 시민은 오는 7월 21일까지 사천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참가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해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모집인원은 총 40명 (1기수당 20명, 총 2기수)이며, 1기수(7월 26일~8월 15일)와 2기수(8월 16일~9월 5일)는 매주 월·수·목요일 19시부터 21시까지 총 15차례에 걸쳐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전문 극단인 장자번덕의 배우들이 체험교육을 실시하고, 시민배우들은 직접 공연장 무대에 올라 연습을 하게 된다.

사천문화재단과 극단 장자번덕이 협업하는 문화예술교육프로램 '연극 우리를 잇:다'는 공연예술을 직접 체험하는 기회를 가지도록 함으로써 새로운 예술경험을 제공하고자 하는 종합예술장르인 연극 교육프로그램이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극단 장자번덕과 시민배우들은 고려 현종대왕에 관한 에피소드로 연극을 만들어 성과발표회도 열 예정이며, 오는 10월 28일부터 31일까지 열리는 고려현종대왕축제에서 '고려 현종'을 주제로 창작될 공연에 출연한다.

이번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인 '연극, 우리를 잇:다'에 참여할 시민 배우 모집 관련 자세한 내용은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문화재단 관계자는 "예술가와 시민들이 함께 소통하며 즐기고자 이번 문화예술교육프로램 교육을 진행한다"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최광용/기자

광주광역시, 제5회 지속가능발전교육 박람회 개최

7월14일 ~ 9월3일 진행…12일까지 참가 20개팀 모집

광주광역시는 광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광주평생교육진흥원과 공동으로 대면·비대면을 병행한 '제5회 지속가능발전교육(ESD) 박람회'를 오는 14일부터 9월3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박람회는 '책에서 지속가능을 찾고 지역에서 행동하다'라는 주제로 기후위기 등 지구적 문제를 지역에서 해결하는 교육 모델을 시민들이 직접 발굴·보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기후위기에 관심있는 시민 누구나 3~4명으로 팀을 구성해 참여할 수 있으며, 학습과 실천 활동을 위해 각 팀당 30만원 예산지원 및 워크숍, 비대면 상영회, 강연 등 공동교육을 지원할 예정이다. 모집기간은 오는 12일까지다.

참가를 희망하는 시민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또는 광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신청하면 되며, 궁금한 점은 광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하면 된다.

참가 시민들은 기후위기 관련도서와 연관 분야 도서를 읽고 우리 지역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을 찾아서 실천하는 프로그램을 수행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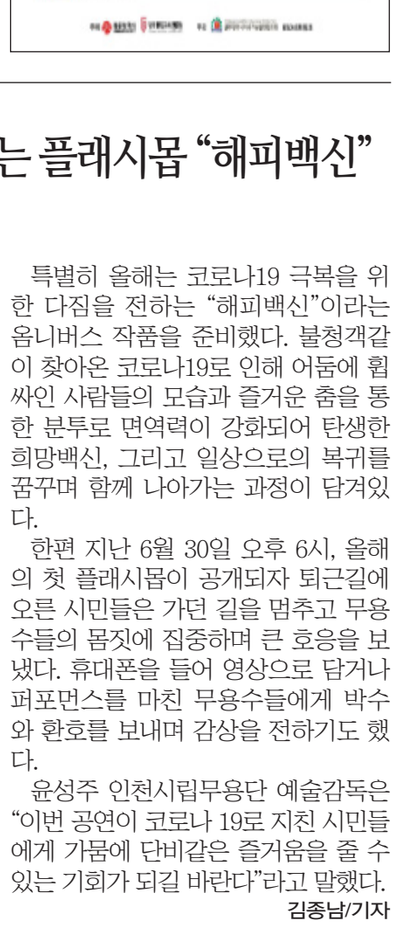
향후 지속가능발전교육(ESD) 프로그램 확산과 보급을 위해 참가팀을 대상으로 우수사례 시상 및 시민실천 가이드북 발간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지역사회와 협력해 기후위기, 코로나19와 같은 글로벌 이슈에 대응해 시민 누구나 일상에서 참여할 수 있는 지방의제21 실천사업 등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보급하고 있다.

올해는 소규모 모임을 통해 학습과 실천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박람회를 추진하며, 지난해에는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쓰레기 분리배출, 온실가스 감축, 우유갑 모으기 등을 개인별로 실천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인증하는 형태의 비대면 박람회를 진행했다.

박재우 시 기후환경정책과장은 "코로나19와 같은 글로벌 이슈의 증가와 기후위기 심각화로 인해 시민 모두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학습하고 실천할 수 있는 지속가능발전교육이 절실하다"며 "시민교육의 보편적 확산을 위해 광주평생교육진흥원과 협업을 강화하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중심으로 시민단체와 공동 개발하는 콘텐츠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남궁영기/기자



칠곡군, 미술 작품 임대전시 '호평'

칠곡군이 지역 작가의 작품을 빌려 청사 1층 로비에 전시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도시 지정을 추진 중인 칠곡군은 지난달부터 지역 작가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주민들에게 문화·예술 감상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미술작품을 임대 전시했다.

칠곡군은 맥심회 곽호철 회장의 작품'호국의 다리'를 전시했다.

맥심회는 칠곡군 출신 중견 작가 24명이 모여 왕성한 작품 활동을 펼치고 있는 예술단체다.

그림 전시를 통해 청사 분위기가 한층 밝아지고 격조 높은 미술작품 감상 기회가 제공되어 주민들로부터 기대 이상의 반응을 얻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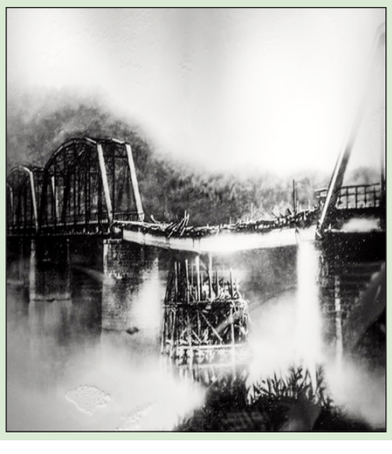
2일 청사를 방문한 한 민원인은"딱딱할 줄만 알았던 군청에서 유명 작가의 수준 높은 미술작품을 감상하니 마음의 여유가 생긴다"며 작품 임대를 반겼다.

또 호국평화의 도시인 칠곡군의 도시 정체성을 상징하는 호국의 다리가 작품으로 재해석되어 지역민에게는 자긍심을 심어주고 외지인에게는 칠곡군을 알리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된다.

곽호철 맥심회장은"제 그림은 호국의 도시 칠곡군이 문화도시로 나아가는 상징적인 작품"이라며"지역을 중심으로 미술작품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각 기관, 기업, 사업장에 작품을 임대해 걸어두는 운동이 확산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백선기 칠곡군수는"이번 미술작품 전시를 통해 지역 작가들의 창작활동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주민들이 일상에서 문화를 향유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앞으로 자연·예술·사람이 어우러진 고품격 문화도시를 조성해 주민 누구나 문화를 창조하고 향유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세기/기자



부산시, '16. 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영화제' 개최

부산시는 7월 5일부터 12일까지 8일간 영화의전당, CGV화명, BNK부산은행 아트시네마에서 「16. 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영화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영화제가 주최·주관하는 이번 영화제는 '아이에겐 감성을, 어른에겐 감동을!'을 행사모토로 하고 '달라도좋아!(We are all unique!)'를 슬로건으로 한다.7월 5일 오후 6시 개막식을 시작으로 ▲상영회 ▲관객과의 대화 ▲교육영화 시사회 ▲포스터그림전시회 ▲특별공연 ▲학술행사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진다.

영화제 기간에는 총 56개국 180편의 영화가 상영되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확산에 대비한 안전한 영화제 개최를 위해 온라인(온피프) 상영도 병행한다.

개막작은 한국계 스웨덴 감독 린다 함박의 '고릴라 별'로 다름을 용인하지 않는 배타적인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과연 타자(他者)가 설 자리는 어디일지를 묻는 영화다. 이는 7월 5일 오후 7시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에서 공개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아시아 최초 유네스코 영화창의도시 부산에서 개최되는 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영화제를 통해 어린이·청소년들이 마음껏 꿈꾸고 자유롭게 상상하며, 한층 더 성장하는 소중한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고 전했다.

상영작, 시간표 등 영화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영화제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상영작 예매는 영화의전당 홈페이지 또는 현장에서 하면 된다.

남궁영기/기자

인천시, 코로나19 물렀거라! 횡단보도에서 펼쳐지는 플래시몹 "해피백신"

난 2019년 시민들에게 인상적인 '일상 속 예술의 해프닝'을 경험케 한 인천시립무용단의 '횡단보도 플래시몹'이 다시 돌아왔다.

인천광역시 오는 8일 오후 6시 인천터미널 사거리에서 인천시립무용단 창단 40주년 특별기획 '2021춤추는도시인천'의 스페셜 프로그램인 횡단보도 플래시몹 '해피백신'이 펼쳐진다고 밝혔다.

'횡단보도 플래시몹'은 횡단보도 상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공연이다. 파란불이 켜졌다 꺼지는 짧은 시간 동안 게릴라성 공연을 펼치며 일상의 거리가 예술의 공간으로 바뀌는 새로운 경험을 선사한다.

특별히 올해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다짐을 전하는 "해피백신"이라는 옴니버스 작품을 준비했다. 불청객같이 찾아온 코로나19로 인해 어둠에 휩싸인 사람들의 모습과 즐거운 춤을 통한 분투로 면역력이 강화되어 탄생한 희망백신, 그리고 일상으로의 복귀를 꿈꾸며 함께 나아가는 과정이 담겨있다.

한편 지난 6월 30일 오후 6시, 올해의 첫 플래시몹이 공개되자 퇴근길에 오른 시민들은 가던 길을 멈추고 무용수들의 몸짓에 집중하며 큰 호응을 보냈다. 휴대폰을 들어 영상으로 담거나 퍼포먼스를 마친 무용수들에게 박수와 환호를 보내며 감상을 전하기도 했다.

윤성주 인천시립무용단 예술감독은 "이번 공연이 코로나 19로 지친 시민들에게 가뭄에 단비같은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종남/기자

"울산역 복합환승센터, 첫 삽 뜬다"

울산 서부권 개발의 기폭제가 될 울산역 복합환승센터가 드디어 첫 삽을 뜬다.

울산시는 롯데가 7월 5일 오전 11시 울산역 복합환승센터 건립 부지내에서 울산역 복합환승센터 기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날 기공식에는 송철호 울산시장과 황범석 롯데쇼핑(주) 백화점사업부 대표를 비롯해 박병석 시의장, 지역 국회의원, 김한영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하석주 롯데건설(주) 대표 등이 참석한다.

울산역 복합환승센터는 울주군 삼남읍 신화리 1602번지 일원 부지면적 7만 5,304㎡에 연면적 16만 7,360㎡로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로 건립된다.

총사업비 2,820억 원이 투입되며 환승주차장 등의 환승시설과 쇼핑몰, 스포츠 및 키즈, 푸드테마 등의 상업시설이 들어서게 된다.

건립 공사는 울산역 이용자들의 환승주차장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부지 내에서 2단계로 나눠 시행된다.

먼저 1단계로 환승시설(환승주차장) 전체와 상업시설 일부를 완공하고, 2단계로 나머지 상업시설은 오는 2025년까지 최종 완공할 계획이다.

롯데는 당초 올 연말 착공 계획이었으나, 기존 울산역 주차장 이전을 위한 대체주차장 조성과 터파기 등 기초공사를 우선 착수하고 이와 병행해 개발실시계획 및 건축인허가 변경 등 행정절차가 마무리 되는대로 본격적인 건축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울산시는 울산역 복합환승센터가 완공되면 생산유발 효과 2,960억 원, 부가가치세 창출 1,560억 원, 2,400여 명의 일자리 창출 등 엄청난 경제적 파급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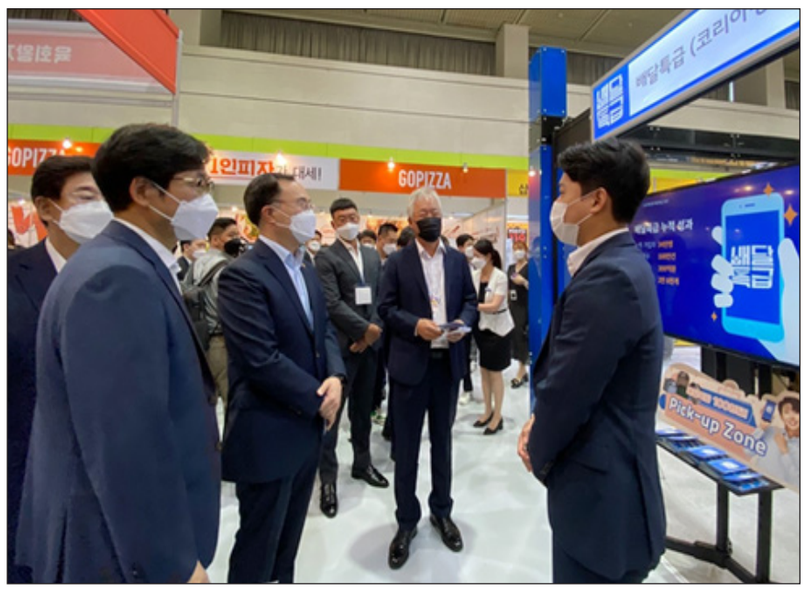
특히 케이티엑스(KTX) 울산역과 연계한 최적의 교통환경과 새로운 쇼핑 문화 도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부산·울산·경남의 주변지역을 아우르는 상권의 광역화 등 큰 변화가 예상된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지난 2017년도 복합환승센터 지정 승인 이후 그 간에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울산역 복합환승센터는 서부권 개발의 기폭제이자 도시 발전을 위한 핵심사업인 만큼, 앞으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빠른 시일 내 완공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역 복합환승센터 사업은 지난 2017년 복합환승센터 지정 승인 이 후 2018년 5월까지 개발실시계획 승인 및 건축허가 등 제반 절차를 완료했으나, 이 후 사업시행자 사정 등으로 지연되어 오다 올해 4월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공사에 착수해 오는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김기현/기자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IFS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참여…성황리 종료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이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서울시 코엑스(COEX)에서 열린 'IFS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에 참여해 관람객들에게 경기도 공공배달앱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4일 경기도주식회사에 따르면, IFS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는 약 2만 2,000명의 예비창업자가 방문하는 대형 행사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KFA)가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이 후원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은 활발히 성장 그래프를 그리고 있다. 현재까지 배달특급은 가입 회원 34만 명, 총 거래액 300억 원을 돌파하며 전국에서도 우수 성공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배달특급은 지역화폐 연계를 통한 소비자 할인 혜택과 가맹점주에게는 1%의 중개수수료를 장점으로 내세우며 가맹점을 확대하고, 지난 1일 고양시를 더해 총 19개 경기도 지자체에서 서비스 중이다. 올해까지 성남시를 제외한 총 30개 경기도 지자체에서 배달특급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이번 IFS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를 통해 예비창업자들에게 배달특급의 서비스 취지를 알리고 최근 4차 산업 시대를 맞아 중요도가 부각되고 있는 공공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설명과 동시에 민간배달앱의 훌륭한 대체안이라는 점을 널리 홍보했다.

한편 지난 2일에는 박람회 현장에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방문해 배달특급 홍보관을 찾아 관심을 끌기도 했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이번 박람회 참여를 통해 공공플랫폼 홍보와 더불어 여러 프랜차이즈 브랜드와의 협업을 추진, 앞으로 배달특급 소비자의 선택권을 더욱 넓혀나갈 계획이다.

최정근/기자

경남신용보증재단, 생애처음 특별보증 실시

경남신보를 처음 이용하는 소상공인·소기업에게 한도, 금리 우대

경상남도는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오는 5일부터 bnk경남은행·nh농협은행과 업무협약을 맺고 지역 소상공인·소기업을 위한 300억 원 규모의 경상남도 소기업·소상공인 생애처음 특별보증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보증은 경남신보의 신용보증을 이용한 적이 없는 신규 고객을 대상으로 한도우대, 보증료 감면 등 각종 우대혜택을 제공해 소상공인·소기업의 조속한 사업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 상품이다.

업체당 1억 원 한도로 보증심사를 완화하여 지원하고, 대출금 전액에 대해 재단이 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은행의 대출금리 우대를 도모한다. 또한 고객이 납부하는 보증료를 연 0.6%로 대폭 감면하여 최대한의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단, 경남신보를 이용한 적이 있거나, 현재 보증기관(지역신보,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을 이용 중인 기업, 일부업종(제조업, 건설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보증상담 예약은 오는 5일 오전 9시부터 경남신용보증재단 누리집에서 한도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신청할 수 있다.

휴대폰 본인인증을 거친 후 상담일자와 시간을 예약해 해당 날짜에 신분증과 준비서류를 가지고 지점을 방문하면 된다.

경남신보는 신규 고객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라디오 등 방송 매체를 활용하거나 각종 소상공인 관련 단체를 방문해 특별보증을 홍보해, 많은 소상공인이 융자 지원 혜택을 누리도록 할 예정이다.

김현미 경남도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이번 특별보증 실시로 한 번도 신용보증제도를 이용해 본 적 없는 소상공인이 코로나19로 인한 자금난을 해소하는 데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광용/기자

강원도, 그린바이오 융합형 신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강원도는 7월 5일 17시 서울대학교 평창캠퍼스 본관에서 평창군,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강릉분원,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과 함께 '그린바이오 융합형 신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그린바이오 산업은 농업에 바이오테크가 가미되어 고부가가치 제품 등을 만들어내는 산업으로 최근 몬산토, 바이엘, 켐차이나, 듀폰 등 다국적 글로벌 농업, 제약, 화학 기업 간 거대합병이 이루어질 정도로 전 세계적인 신 성장산업으로 급부상되고 있는 사업이다.

강원도는 그린바이오의 소재인 천연자원의 보고라는 장점과 함께 그린바이오에 특화된 서울대학교 평창캠퍼스, 그린바이오 소재인 천연물에 특화된 KIST 강릉분원 천연물연구소, 바이오원료화와 산업화에 특화된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이 소재하고 있어 그린바이오 소재발굴에서 원료생산, 가공, 유통, 소비와 전후방 산업까지 전주기플랫폼 생태계가 가능하다.

이번 협약을 통해 강원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유치를 위한 협업을 시작으로 향후 5대 유망산업(마이크로바이옴, 대체식품, 종자, 동물용의약품, 기타생명소재)을 중심으로 IT, BT 관련 기술과 융합한 새로운 그린바이오 산업을 육성을 위한 협력체계를 이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등원/기자

경상북도-조달청 혁신조달 활성화 협약 체결

지역 혁신기업 제품 판로 확대로 경북 지역 경제 활성화

경상북도는 5일 도청 사림실에서 조달청과 혁신조달 활성화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혁신조달은 혁신제품이 상용화되기 전에 공공기관이 초기 구매자가 되어 사용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민간부문의 기술혁신을 촉진시켜 공공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경북 지역에 혁신조달 정책을 확산시키고, 지역의 우수한 창업·벤처 기업이 혁신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지원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업무협약을 통해 경상북도와 조달청은 지역의 공공서비스 혁신을 위한 수요 발굴과 판로를 지원하고 혁신제품 시범구매사업 참여와 실증지원 등을 위한 협력체계를 마련하였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조달청의 혁신조달 사업이 경북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실현 가능한 혁신조달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지역 내 공공기관 및 조달기업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경상북도 소재 우수연구개발혁신제품 5개사, 혁신시제품 6개사, 기타 혁신제품 2개사 등 총 13개 업체에서 316개 제품을 혁신장터에 등록하였고, 혁신제품 등록 확대가 기업의 혁신성장을 견인하고,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만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철우 도지사는 "오늘 업무협약을 계기로 혁신기술 제품을 적극 구매하여 지역 창업·벤처 기업의 공공조달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혁신제품 발굴에도 힘 쓰겠다"고 밝혔다.

김세기/기자

인천 산업단지, 지역산업 혁신거점으로 재탄생

인천시,'산업단지 대개조 사업화 지원 사업'최종 확정

인천광역시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1년 산업단지 대개조 지역기업 사업화 지원 사업'에서 주관기관으로 인천 테크노파크가, 참여기관으로는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 인천지역본부가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산업단지 대개조 지역기업 사업화 지원 사업'은 인천이'20년 5월에 선정된 정부 일자리 공모사업인'2021년 산단 대개조'사업 중 하나이다. Post-코로나 대응, 소부장 산업 육성 등 미래 선도 산단 구축이라는 비전 및 목표를 가지고 제조업의 중추인 산업단지를 지역산업 혁신거점으로 만들어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보유기술 사업화 및 업종·사업 다각화를 촉진해 지역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추진된 사업이다.

인천테크노파크와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지역본부에서는 최대 2년간 총 20억 원(국 1,176백만 원, 시비 504백만 원, 민간부담금 329백만 원)의 사업비로 남동·부평·주안 산단 및 송도경제자유구역에서 기계, 전기전자 분야를 영위하는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제품디자인 개발지원, 시제작 지원, 마케팅 지원, 경영, 품질, 마케팅, 조직관리 등 핵심역량강화 교육지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온라인 수출상담회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기업을 지원한다.

이 중 제품디자인개발은 신규 제품개발을 위한 디자인리서치, 아이디어 구체화(2D, 3D), 디자인 시안 도출, 목업 제작 및 검증 디자인 출원까지 디자인 R&D 개발의 전주기를 지원한다. 시제작 지원은 디자인결과물을 가지고 3D프린터 및 스마트 스캔을 이용해 제품 양산 이전 단계에서 디자인 검증 및 검토, 디자인 품질관리를 위한 시제품 제작 및 3차원 설계, 3차원 측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마케팅 지원으로 온라인 상세페이지 제작지원이나, 온라인 B2B입점지원 등 산단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3,000만원 한도의 다각화된 지원을 해나갈 계획이다.

이남주 시 산업진흥과장은 "이번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화 지원사업을 통해 인천시 주력 제조업이 한층 더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산단대개조 사업화 지원 사업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은 인천테크노파크 디자인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종남/기자

광주광역시, 도시가스 요금 동결

광주광역시는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적용되는 일반도시가스 소비자 요금을 인상 없이 작년과 동일한 요금으로 적용하겠다고 4일 밝혔다.

도시가스 요금은 한국가스공사의 도매요금과 지역별 도시가스 사업자의 소매공급비용을 합산해 최종 결정하여 조정하며, 한국가스공사의 도매요금은 정부부처간 협의를 통해 산업통장자원부 장관이 승인하며, 소매 공급비용은 시·도지사가 승인한다.

광주시는 회계법인 용역 결과 인건비 상승, 감각상각비 증가, 신규 배관투자비 등 전년 대비 인상 요인(9.12원/㎥, 10.93%)이 발생하였으나, 물가상승 불안요인과 서민 및 소상공인 등의 생활비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전년수준으로 동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3월 코로나19로부터 지역경제지키기 제2차 민생안정대책 발표에 따른 6대 공공요금(상수도, 하수도, 도시가스, 시내버스, 택시, 도시철도) 동결 등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조치이며,

또한, 하반기 일시적 물가상승이 과도한 기대 인플레이션 자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방공공요금의 인상을 자제토록 하는 정부방침에 따라 물가안정과 서민 및 소상공인 등 시민 생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다.

특히, 광주시는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도시가스 소비자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했지만 소매공급비용을 동결해 왔으며 올해 또한 요금상승 요인이 있었지만, 도시가스사업자인 (주)해양에너지로 하여금 경영효율화를 통해 자체적으로 흡수할 수 있도록 유도키로 했다.

또한, 광주시는 이번 도시가스 소비자요금 조정 시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보급 확대를 위해 미공급 지역과 소외지역에 도시가스 공급 투자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손경종 시 인공지능산업국장은 "코로나19로 서민경제가 매우 어려운 현실이므로 조금이나마 가계에 보탬이 되고자 인상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가스 소비자 요금을 동결했다"며 "앞으로도 도시가스 요금은 물론 서비스 수준 향상과 안전관리 강화도 차질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덕윤/기자

'라디오스타' 홍윤화, 네번째 '라스' 출격! 그동안 묵혀왔던 업그레이드ver 개인기 大방출!

자칭 "'라디오스타'가 낳은 자식", 개그우먼 홍윤화가 '라디오스타'에 네 번째로 출격해 그동안 묵혀왔던 업그레이드 버전 개인기를 대방출한다.

오는 7일 밤 10시 20분 방송 예정인 고품격 토크쇼 MBC '라디오스타'(기획 강영선 / 연출 강성아)는 홍윤화, 이은형, 하연수, '이달의 소녀' 츄와 함께하는 '신비한 얼굴 사전' 특집으로 꾸며진다.

홍윤화는 예능 꿈나무를 여럿 배출한 '라디오스타'가 발견한 예능계 스타다. 앞선 출연에서 홍윤화는 현장을 초토화 시키는 '개인기 자판기' 면모를 자랑해 큰 화제를 모았었다.

벌써 네 번째로 출연하는 홍윤화는 "나는 '라스'가 낳은 자식"이라며 '라디오스타'를 향한 애정을 자랑한다. 이어 그는 "'라디오스타' 출연 당시에 입었던 옷을 옷 방에 모셔 뒀다. 오늘 입은 옷도 걸릴 수 있을지 궁금하다"며 활약을 예고한다.

홍윤화는 '신비한 얼굴 사전' 특집에 걸맞게 그동안 묵혀왔던 업그레이드 된 개인기를 대방출한다. 얼굴만으로 여러 스타의 특징과 매력을 훔쳐 오는(?) '얼굴 루팡' 면모를 자랑하며 수요일 밤 웃음 치트키 역할을 톡톡히 할 예정이다.

표정만으로 여러 사람을 소환하는 마법 같은 개인기를 이어가던 홍윤화는 도플갱어와 여러 차례 우연처럼 만난 사연을 공개한다. 특히 식당에서 우연히 범상치 않은 포스의 사람과 등을 맞대고 '맞삼겹'을 했는데, 이 사람이 자신의 도플갱어였다며 그 사람의 정체를 밝혀 MC들을 놀라게 했다고.

또 홍윤화는 '먹고수' 답게 애피타이저부터 후식까지 오직 배달 음식으로 가능한 '풀 코스'를 공개한다. 특히 첫 코스로 빵을 주문하는 이유를 밝히며 "많이 주문하면 안 된다. 3명 기준 4개"라며 남다른 배달 주문 철학(?)을 공개해 시선을 강탈할 예정이다.

한편 홍윤화는 함께 출연한 이은형과 '찐친 케미'를 자랑한다. 홍윤화, 김민기 부부는 이은형, 강재준 부부와 서로 배우자를 바꿔 색다른 부부애를 자랑하는 개그 코너 2021년 버전 '슈퍼차 부부'를 선보여 인기를 누리고 있는 터. 홍윤화는 "부부끼리 일을 하다 보니 힘들 때가 있다"며 이은형이 녹화 중 은밀하게 강재준을 메치기 해달라고 의뢰를 한 웃픈 비화를 공개한다.

이은형은 "알고 보면 남편 강재준은 홍윤화와 사귄 것"이라며 '철벽남'이던 강재준과 연애하게 된 결정적인 장면을 소환, '10년 열애 비화'를 들려준다.

돌아온 '얼굴 루팡' 홍윤화의 개인기는 오는 7일 수요일 밤 10시 20분에 방송되는 '라디오스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라디오스타'는 MC들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촌철살인의 입담으로 게스트들을 무장해제 시켜 진짜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독보적 토크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전순희/기자

티빙 오리지널 '백종원의 사계' 7월 9일 여름 속으로 떠나는 9화 공개!

티빙 오리지널 '백종원의 사계'에서 여름의 파릇파릇한 무드가 물씬 느껴지는 메인 포스터와 예고편을 공개했다.

오는 7월 9일(금) 9화 공개를 앞둔 티빙 오리지널 '백종원의 사계'는 자타공인 국내 최고의 요리 전문가 백종원이 전국을 돌아다니며 제철 식재료와 요리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내는 로드 다큐멘터리다.

지난 봄, 제주도를 비롯한 영덕, 포항, 목포, 장흥, 하동 곳곳을 방문하며 그 지역에서만 맛볼 수 있는 봄 제철 식재료와 요리를 알려왔던 백종원이 이번에는 여름 제철의 맛을 찾고자 만반의 준비를 마치고 돌아온다.

먼저 공개된 메인 포스터에는 화창한 햇볕이 가득 느껴지는 초록빛의 자연을 배경으로 캠핑을 나선 백종원의 모습이 돋보인다.

긴 소매가 아닌 반팔 티셔츠 차림으로 여름의 계절감을 한껏 풍기며, 여름을 만끽할 수 있는 맛을 찾아 나설 것을 예고해 궁금증을 자극한다.

특히 포스터 속 환한 얼굴로 웃는 백종원의 머리맡에는 싱싱한 해산물과 야채, 고기 등 다양한 식재료들이 그려져 있어 구미를 당긴다.

이는 마치 백종원이 전국팔도의 식재료 지도를 머릿속으로 떠올리는 것처럼 기대케 해 상상만으로도 보는 이들의 입맛을 다시게 한다.

그런가 하면 예고편 역시 푸른 바다와 쨍쨍한 햇볕을 고스란히 담아 여름을 느끼게 한다. 이어 "여름에 뭐 먹지?"라며 고민에 잠긴 백종원이 등장, 곧 수박부터 몸보신 음식인 닭백숙, 장어 등 제대로 된 여름철 먹방에 나서 침샘을 자극한다.

또 백종원이 "여름에 먹을 게 많은데"라고 외치며 펼친 부채에는 '백종원의 사계'가 적혀 있어 오감 만족 맛 기행이 펼쳐질 것을 예고한다.

과연 '백종원의 사계'가 이번에는 어떠한 먹팁과 레시피를 선사할지, 여름의 맛은 어떻게 다를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처럼 청량한 여름의 맛을 담은 티빙 오리지널 '백종원의 사계' 9화는 오는 7월 9일 금요일 공개된다.

최재은/기자

영화 '미드나이트', 해외에서 쏟아지는 뜨거운 관심!

제25회 판타지아 국제영화제 초청

음소거 추격 스릴러 '미드나이트'가 제25회 판타지아 국제영화제와 제20회 뉴욕 아시아 영화제 공식 초청에 이어 해외 11개국에 선판매 되는 쾌거를 이뤘다.

'미드나이트'는 한밤중 살인을 목격한 청각장애인 '경미(진기주)'가 두 얼굴을 가진 연쇄살인마 '도식(위하준)'의 새로운 타겟이 되면서 사투를 벌이는 극강의 음소거 추격 스릴러.

공개 첫날 동시기 개봉작 중 1위를 차지하며 흥행 열기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제25회 판타지아 국제영화제와 제20회 뉴욕 아시아 영화제 초청 소식이 전해져 이목을 집중시킨다.

판타지아 국제영화제는 북미 지역 최대 규모의 장르 영화제로 오는 8월 5일부터 8월 25일까지 캐나나 몬트리올에서 개최하며, 지난 2018년 제작사 페퍼민트앤컴퍼니의 전작 '마녀'가 초청되어 김다미가 슈발누와르 최고여배우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아 화제를 모은 바 있다. '미드나이트'는 아시아 섹션에 초청됐다.

역시 여성 주연의 장르영화인 '미드나이트'의 초청 소식을 들은 제작자 김현우 대표는 "영화의 완성도와 배우들의 연기력을 모두 인정받았던 영화제에 다시 가게 되어 감사하다.

첫 주연작을 통해 국내외 영화제의 여우주연상을 휩쓴 김다미처럼 '미드나이트' 진기주의 연기력도 동일하게 인정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기쁨을 감추지 않았다.

또한 뉴욕 아시아 영화제 초청 소식까지 이어지며 작품성을 인정 받은 '미드나이트'는 해외 각지 관계자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프랑스, 일본,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필리핀, 싱가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까지 선판매를 확정 짓고 개봉일 협의를 진행하고 있어 더 많은 국가의 관객들과 만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제25회 판타지아 국제영화제와 제20회 뉴욕 아시아 영화제 초청 소식과 함께 해외 선판매까지, 국내를 넘어 해외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티빙 오리지널 무비 '미드나이트'는 티빙과 전국 극장에서 만날 수 있다.

현유주/기자

'개미랑 노는 베짱이' 장윤정, 워킹맘 편견 토로 "집안일 안 한다는 건 오해"

'개미랑 노는 베짱이' 장윤정이 워킹맘으로서의 고충을 전했다.

지난 7월 5일(월) 밤 11시에 방송된 MBN 예능 프로그램 '개미랑 노는 베짱이'(기획 김창재/ 연출 안동수, 정해준)에서는 국내 3대 도시락 프랜차이즈 CEO 이의연과 떡볶이로 연 2천억 원의 매출을 기록한 김관훈 대표의 일상이 공개됐다. 그중 장윤정과 이의연이 '슈퍼 워킹맘'으로 하나 된 모습이 시청자들을 사로잡았다.

먼저 아침 일찍부터 출근 준비와 육아를 동시에 병행하는 이의연의 모습이 그려졌다. 이에 장윤정은 "아침이 전쟁이다. 아이들이 '다녀오겠습니다'하고 문을 열고 나가는 모습이 그렇게 사랑스럽다"라며 웃음을 자아냈다. 이어 "여자애들은 옷도 맘에 안 들면 안 입는다. 하영이는 자신의 트레이드마크인 '토끼 머리'가 아니면 유치원에 안 간다"라며 빵 터지는 에피소드까지 공개했다.

이어 밤이 돼도 끝나지 않는 이의연의 일과가 담겼다. 늦은 시각 퇴근 후에 엄마로서의 일이 다시 시작된 것. 피곤한 와중에도 자녀들의 교육까지 책임지는 이의연의 모습이 감탄을 자아냈다. 이에 장윤정은 "우리 하영이는 숙제를 안 한다. (여태까지) 한 번도 안 해갔다"라며 귀여운 고민을 토로하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이날 장윤정의 버킷리스트가 시선을 집중시켰다. "최근에 생겼다"라며 운을 띄운 그는 "산후 관리사 자격증을 따고 싶다"라고 밝히며 스튜디오를 발칵 뒤집었다. 출산 직후 몸이 힘들어 아이를 잘 돌보지 못했던 아쉬움에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방송 말미 "아이들을 보면 마음이 짠하다. 아이들이 예쁠 때 온전히 마음을 쏟지 못해 미안하다"라고 워킹맘의 고질적인 고충을 털어놓는 이의연에 장윤정 또한 "육아와 일이 그렇게 겹친다"라며 공감을 표했다. 이어 "엄마가 바쁘면 집에서 일을 안 할 거라는 것은 오해다. 엄마는 집에서도 일을 놓을 수 없다"라며 워킹맘에 대한 편견을 꼬집었다.

엄마로 하루를 시작해 CEO로 일상을 보낸 후, 학생으로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이의연의 열정은 '성공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였다. 그럼에도 일과 육아 사이에서 여전히 고민하는 이의연의 모습은 공감을 선사했다. 특히 이의연과 장윤정의 '워킹맘 토크'는 월요일 밤 일과 육아에 지친 시청자들에게도 웃음과 위로를 주는 시간이었다.

한편, MBN '개미랑 노는 베짱이'는 열심히 일만 하며 달려온 각계각층의 일개미들을 위해 최고로 잘 논다는 베짱이 MC들이 힐링을 돕는 프로그램이다. 매주 월요일 밤 11시에 방송된다.

전순희/기자

배우 전여빈, MBC 〈놀면 뭐하니?〉 MSG워너비 뮤비 히로인 등극!

전여빈이 MBC '놀면 뭐하니?'로 주말 안방 시청자들을 사로잡았다.

지난 3일(토) 방송된 MBC '놀면 뭐하니?'에서 전여빈은 화제를 모으고 있는 MSG워너비의 뮤비 속 히로인으로 출연해 매력을 뽐냈다. 본격적인 뮤비 촬영 전 유야호와 만난 자리에서 꽃을 선물 받고 갑작스레 '유야호'를 외치며 유재석을 당황시킨데 이어, 김치냉장고를 받기 위해 사투리경연대회에 참가해 대상을 받은 특이한 이력을 밝히며 엉뚱미를 선보여 웃음을 자아냈다.

속전속결 콘셉트로 효율성을 강조한 유재석의 설득에 넘어가 2시간이라는 초단시간 뮤비 촬영에 지원 사격한 전여빈. 신예 감독 이동휘의 지휘아래 MSG워너비 멤버들 속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하며 다수의 뮤비 경험자답게 적극적이고 프로다운 모습을 선보이며 짧은 촬영 속에서도 순식간에 몰입, 멤버들에 감동을 선사하며 성공적인 촬영을 이끌어 내 눈길을 사로잡았다.

음원차트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MSG워너비를 위해 뛰어난 연기력과 매력을 발산한 전여빈이 맹활약한 쁘띠 뮤비가 방송 말미 공개됨과 동시에 높은 조회수를 자랑하며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전여빈은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글리치' 촬영에 한창이다.

최재은기자

'너는 나의 봄' 김예원, 강렬 첫 등장 '톡톡 튀는 신스틸러'

배우 김예원이 톡톡 튀는 매력으로 강렬한 첫 등장을 알렸다.

지난 5일 방송된 tvN 월화드라마 '너는 나의 봄' 첫 회에서 김예원은 강다정(서현진 분)의 절친이자 구구빌딩 1층에서 '구구카페'를 운영 중인 박은하 역으로 등장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구구빌딩에 모이게 된 이들의 이야기가 그려졌다. 강다정은 친구 박은하의 아버지가 소유하고 있는 구구빌딩의 옥탑방에서 살게 됐다.

박은하는 길을 헤매는 강다정에게 "너 강길치다"고 말하며, 새 출발을 하겠다는 강다정에게 지난 남자친구들에 대해 냉철하게 비판하는 등 완벽한 '현실 찐친'의 모습을 표현했다.

또한 쌍둥이 박철도(한민 분)에게는 "원한 적 없는 이유 때문에 엄마 뱃속에서부터 평생을 너하고 '반띵'하고 살았다"고 말하며 구박을 하는 등 티격태격하는 모습을 그렸다.

김예원은 현실을 제대로 직시한 모습의 박은하를 톡톡 튀는 매력으로 표현해내며 시청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다채로운 작품을 통해 보여온 김예원만의 자연스러운 연기를 통해 박은하 역시 자연스럽게 표현해냈다는 평이다. 이에 김예원이 그리는 박은하가 어떤 활약을 펼칠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한편 '너는 나의 봄'은 저마다의 일곱 살을 가슴에 품은 채 어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살인사건이 일어난 건물에 모여 살게 되며 펼쳐지는 이야기를 담은 작품으로 매주 월, 화요일 오후 9시에 방송된다.

최광수/기자